Portland & Oregon

GREEN DELIGHTS

포틀랜드 | 오리건에서 즐기는 그린 배케이션

Portland & Oregon

GREEN DELIGHTS

포틀랜드 | 오리건에서 즐기는 그린 배케이션

From sweeping gorge and magnificent peak
To lush gardens and sweet Pinot noir,
This unique "Pacific Wonderland" has what you have always dreamed of.
Welcome to the land of Green De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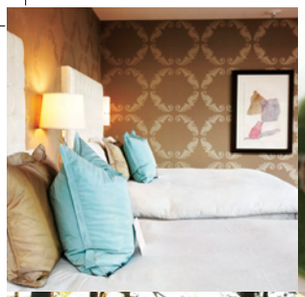
TRAVEL OREGON

travel PORTLAND

DEL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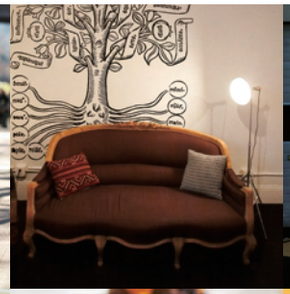
Portland & Oregon Green Delights

포틀랜드 / 오리건에서 즐기는 그린 배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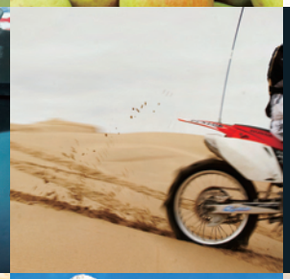


DANGER
KEEP BACK
OF F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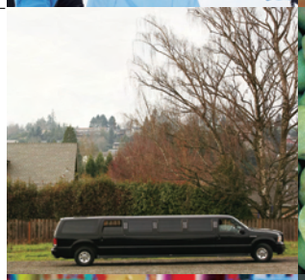
LUCKY LABRADOR
BREWING COMPANY



Pear Chips
Buy 3, get
the 4th free

4


Oregonian
Dreaming.
꼭꼭 숨겨둔 채 혼자만 갖고 싶었던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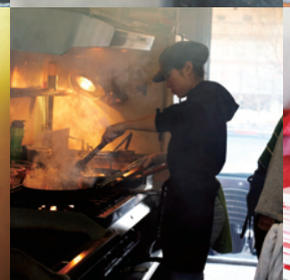
PHOENIX BUYS HOUSES
WE BUY IT, SELL IN 4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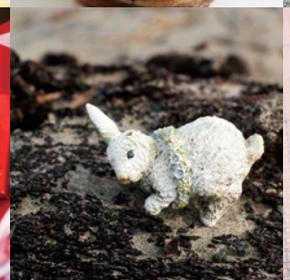
Welcome
to
Haines

AIR FORCE

PUSH
BUTTON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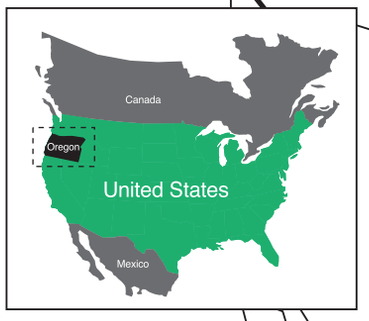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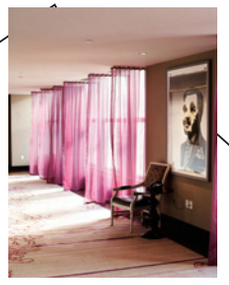
I ♥ U


SUN
COUNTRY
TOURS

What You Can Do, What You Can Enjoy



N
W E
S



Hotel & Fine Dining
훌륭한 호텔과 노스웨스트 퀴진 43

Scenic Driving 70

Steel Bridges 40

La Grande 91

Downtown 106

Lodge 84

Cowboy City 88

University of Oregon 105

Flourishing Art 47

Festival
일 년 내내 열려지는 축제 98

Wine Tasting 58

Mt. Hood 35

Elkhorn Wildlife Area 16

Sports
온갖 종류의
스포츠 천국 84

Pacific Coast

Parks
푸를 디즈니 랜드, 워싱턴 파크 44

Hawthorne Blvd.
히피, 아시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 69

Camping Paradise 84

Oregon Zoo 44

Columbia River Gorge 28

Boutique Hotel 62

Bike Tour 52

Laid-back People
정원과 오가닉을 사랑하는
여유로운 사람들 42

Lighthouse 103

Newport Bay Front 104

Four-Season Golf

Powell's Bookstore
세계에서 가장 큰
인디팬던트 북스토어 43

Gallery 71

CONTENTS

010 Overview
012 Contents

BEFORE YOUR DEPARTURE
출발 전 여행 정보

016 Orientations **여행 준비 및 상식**
018 In, Out & Public Transportations **입출국 및 대중 교통**
020 Driving Your Way **자가 운전 여행을 위한 팁**
021 Smart Enough? **웹과 모바일 자료로 똑똑하게 여행하기**

TAKE YOUR OWN STORY
오리건, 당신의 이야기

TAKE ONE A Fresh Breath **거짓말 같은 다양함에 감탄하다**
026 Columbia River Gorge 말 많은 강, 말이 새지 않는 폭포
028 John Day Fossil Beds National Monument 자연의 추상
030 Crater Lake National Park 빠져들고 싶은, 깊고 푸른 눈망울
032 The Oregon Coast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101가지 풍경
034 Mt. Hood 도심에서 한 시간 거리의 레포츠 천국
036 Itinerary Recommendation 오리건 자연 경관 추천 여행 일정
038 Information 상세 정보

TAKE TWO Portland, Scent of Roses **오래 맘속에 남을 장밋빛 꿈의 도시**
042 Eco and the City 이방인의 마음마저 편안해지는 친환경 도시
044 Joy @ the Green 푸른 재미에 빠져 보기
046 Free Your Soul 엘리엇 스미스, 구스 반 산트, 그리고 자유
048 Local Food Enthusiasm 미국식 신토불이를 이야기하다
050 Itinerary Recommendation 포틀랜드 중심 추천 여행 일정
052 Information 시내 여행 정보

TAKE THREE Blaze a Taste **오리건은 미식 천국이다**
056 Welcome to Beervana, USA 오리건이라 쓰고 맥주라 읽는다
058 Born to the Purple 레드 혹은 화이트? 둘 다 베스트!
060 Hearty, Healthy Northwest 햄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식 이야깁니다.
062 Mix & Match 다양한 식문화의 믹스 앤 매치
064 Oregonians' Got Talent 재능 만발, 오리건 로컬 푸드
066 Information 음식 정보

CONTENTS

TAKE FOUR Art + Shopping **쇼핑도 예술도, 당신 맘대로**
070 The Art-holic State 모든 타입의 아트홀릭들을 위해
072 Museums about Everything 박물관 옥석 고르기
074 Shoppers' Tax Haven '지름신'은 내려도 세금은 붙지 않는다
076 Green, Organic Paradise 관광과 체험으로서의 오가닉에 열광한다면
078 Information 쇼핑 및 갤러리 정보

TAKE FIVE Wild & Winded **여행이 '구석구석'이어야만 하는 이유**
082 In a "Green" State of Mind 일 년 내내 부는 녹색 바람
084 Sports Wonderland 사계절 스포츠 원더랜드
086 Sand Dune Waves 모래 위에서 파도 타기
088 In a Cowboy Mood 카우보이처럼 말하기
090 Far, but Not Away 외진 만큼 특별한 동부의 하루
092 Itinerary Recommendation 로컬 오리건 추천 여행 일정
094 Information 로컬 관광 정보

TRAVEL APPENDIX
잊지 못할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098 Year-round Festivity 1년 내내 계속되는 오리건의 축제
102 More Things You Never Miss 미처 하지 못한 10가지 덧말
106 Portland Central City Map 포틀랜드 도심 지도
108 Greater Portland Area Map 포틀랜드 광역 지도
110 Oregon Map 오리건 전체 지도
112 Winery Map 오리건 와이너리 지도
114 Travel Note 트래블 노트

Book Guidelines 책을 읽기 전에

1. Theme-based Category
테마별 섹션
이 책 〈PORTLAND & OREGON: GREEN DELIGHTS〉는 지역이 아니라 주제별로 섹션을 나누었습니다. 다섯 개의 테마 속에는, 처음 책을 펼치며 '대체 뭘 보러 오리건엘 가지?' 라고 물어 볼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다섯 가지 대답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2. Symbols
책에 사용된 기호
00 해당 내용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페이지
A 주소 또는 찾아가는 길을 표시한 지역 정보
T 전화 번호 (미국 국가번호 1번은 생략)
W 웹사이트

3. Production Date
취재 및 자료 수집
이 책에 포함된 내용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의 내용보다 이 책에 표시된 인터넷 소스에서 더 최신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Travel Info 1
Orientations
여행 준비 및 상식

When to Go 방문시기
5월부터 10월 까지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여름은 무덥지 않고 봄과 가을은 매우 쾌적하다. 12~2월의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지만 영하의 추위는 거의 없어, 흐린 날씨가 괜찮다면 굳이 여행을 꺼릴 이유도 없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비가 부슬부슬 흩뿌리다가 금세 개는 정도여서 우산을 굳이 쓰지 않는 사람도 많다. 단, 내륙 및 산간 지역에는 겨울철에 폐쇄되는 도로나 관광 시설이 있음에 유의, 미리 확인할 것.

Climate & Weather 기후 및 날씨
기본적으로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습하다. 중앙부의 캐스케이드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이 더 습하고 기온 변화가 적다. 내륙 지방의 경우 여름 기온이 30도를 넘지만, 그런 불볕더위는 짧은 편이다. 봄, 가을 및 대부분의 여름철이 쾌적한 편이며, 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없고 비가 자주 내린다. 포틀랜드는 7~8월 여름 기온이 최저 15도에서 최고 27도 선, 12~1월 겨울 기온이 최저 2도에서 최고 8도 선이다.

How to Wear 옷입기
유럽에 비해 미국 사람들이 옷에 신경을 덜 쓰는 편이고, 미국에서도 오리건 사람들은 더욱 덜 쓰는 편이다. 아주 최상급의 포멀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 재킷이나 셔츠 착용을 요구하는 곳도 거의 없다. 여름에는 선선한 아침 저녁을 위해 얇은 카디건이나 재킷을, 겨울에는 방수 재질의 레인코트나 점퍼 하나쯤 갖고 가면 좋다.

Money, Cost & Tipping 물가 및 팁
미국 달러를 사용하며 물가는 다른 대도시가 아닌 주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비세가 없어 대형 면세 아울렛 등 쇼핑 환경이 좋은 편이다. 미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숙박비 등이 여름철에 가장 비싸고 겨울철에 싸다. 사람에게 직접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팁을 지불하는 게 관례다(식당에서 15~20%, 택시 10~15%).

Culture & Lifestyle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포틀랜드와 오리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린'이란 수식어를 붙이길래, 깨끗한 전원 환경에 어딘가 촌스러운 –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 사람들이 모여 살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정치문화적으로는 미국에서도 가장 리버럴한 축에 속한다(물론 다른 어느 주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시골 간의 정치 성향과 태도 차이는 분명 있다). 오리건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며 미국에서 유일하게 '죽을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주다. 재활용과 하이브리드카 이용율 등 환경 보호 인식도 대단히 투철해 대중교통, 걷기와 자전거타기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손수 만든 음식에 대한 애착이 강해 상대적이나마 패스트푸드 이용 빈도도 낮은 편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편안하고 느긋한 편이며, 백인의 비율(80퍼센트 이상)이 절대적으로 높다.

Security 치안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에 속한다. 다가와 돈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추근대진 않는다. 물론 도시에선 어디에나 우범지역은 있기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라면 밤에 돌아다녀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항상 주위 분위기를 살피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티를 내지 않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의 주의는 어딜 가나 필요하다.

Facts 통계
인구 3,825,657명 (2009년 추정치)
면적 255,026제곱킬로미터 (미국에서 9번째로 넓은 주)
타임존 Pacific Time Zone (UTC −8 / −7)
GDP 1,616억 달러 (2008년. 미국내 26위)
주요 도시 포틀랜드Portland, 유진Eugene, 세일럼Salem(주도)
주요 기업 나이키Nike, 컬럼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등
주요 특산물 헤이즐넛(미국내 생산량의 95%), 박하, 맥주 호프hops, 사과, 목재

Travel Info 2
In, Out & Transportations
입출국 및 대중 교통

Airlines 항공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은 없으며, 델타항공 ko.delta.com이 인천–도쿄(나리타)–포틀랜드 구간을 매일 운행한다.

Visa 비자
우리나라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90일 미만의 관광 목적 방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여권이 있어야 하고 출발 전에 인터넷으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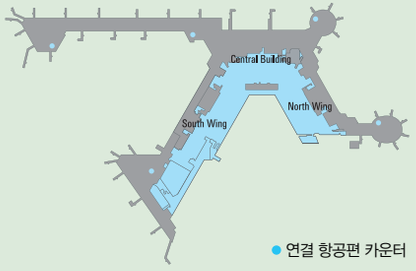
Customs & Immigration 세관 및 입국 심사
입국시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입국 카드를 나눠준다. 입국심사대에서는 주로 여행 목적이나 숙소 등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받는다.

Self Check-In 셀프 체크인
요즘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셀프 체크인 기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포틀랜드의 델타항공 셀프 체크인 기기의 경우, 먼저 항공편 예약번호 혹은 티켓 번호를 입력한 뒤 여권을 스캔하고 수하물 수를 입력하면 보딩 패스가 출력된다. 부칠 수하물은 카운터 반대방향으로 'Baggage Drop' 안내판을 따라 접수대로 갖고 가 부치면 된다.

Portland Transportations 포틀랜드 대중 교통
지방의 경우 현실적으로 차가 없으면 여행이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포틀랜드에는 버스와 전차 Streetcar 및 맥스(MAX, Metropolitan Area Express)라 불리는 경전철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게 갖춰져 있다. 가장 흔히 이용하게 될 MAX는 옐로, 블루, 레드, 그린의 네 개 라인이 있는데, 이 중 레드 라인이 공항과 다운타운을 바로 연결한다(약 40분 소요, 성인 1인당 편도 2.05 달러). 포틀랜드 다운타운 지역이 포함되는 무료 탑승 구역 Fareless Square 내에서 이동할 때는 모든 종류의 대중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MAP 지도 참조). 무료 탑승 구역을 벗어나 탑승 혹은 하차하는 경우, 거리에 따라 1.7 ~ 2달러의 티켓을 정류장의 티켓 머신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W trimet.org

Transfer 환승
델타항공의 인천–도쿄–포틀랜드 구간 이용 시 도쿄 나리타 공항 Narita Int'l Airport 에서 비행기를 갈아탄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면 한글로 적힌 '국제선 환승' 안내판이 보이며, 이를 따라 가면 보안 검색대가 나온다.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전광판에서 출발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를 확인, 시간에 맞춰 게이트로 가면 된다. 액체 물품 반입의 경우, 투명 용기에 담긴 100ml 미만의 액체 용품과 나리타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만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

나리타공항 환승 지도 – Terminal1



Between the Cities 지역간 이동
포틀랜드에서 유진, 세일럼, 메드포드 등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기차는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며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기차보다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아주 편리하지는 않다. 포틀랜드를 벗어나 지역간의 이동에는 자가용이 제일 편리하다.

Travel Info 3

Driving Your Way

자가 운전 여행을 위한 팁

Driving @ Oregon
자동차 여행 하기

미국의 다른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오리건에서도 여행에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은 자가용이다. 포틀랜드 시내 혹은 그 주변의 MAX 이용 구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면 차를 렌트하는 게 필수다. 미국에서의 자가 운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영화에서 나오는 '인종주의 경찰관'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 그대로 왜곡된 미디어 이미지일 뿐이며, 특히 오리건의 운전자들은 절대 다수가 느긋하고 방어적이다. 길을 몰라 서행하거나 주차에 애를 먹어도 뒤에서 경적 한 번 듣기 힘들다. 길은 한국보다 훨씬 넓고 도심이 아닌 이상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

Int'l Driver's License
국제운전면허증

현지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당일발급). 그리고 현지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및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Rent-a-Car 렌터카
한국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드시 보험을 드는 것이 좋으며 만 25세 이하 운전자는 요금이 할증된다.

Map & Road Number
지도와 도로번호

오리건의 가장 상세한 도로가 표시돼 있는 공식 도로 지도 Oregon Official State Map 는 관광안내소나 교통안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Parking 주차
도심 도로변마다 주차 구획이 있지만 붐비는 시간대에는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니다(그렇다고 서울처럼 치열하지도 않다). 주차 구획 옆에 30분, 1시간, 2시간 등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있으니 이 시간보다 길게 주차할 때는 미리 주차 요금 정산기에서 티켓을 구입해 잘 보이는 유리창 안쪽에 붙여 둔다. 도심에서 빈 공간을 찾기 힘들 때는 스마트파크SmartPark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파크는 모두 6곳이 있으며, 모두 합해 4천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요금은 처음 4시간 동안은 시간당 1.5달러, 4시간 이후부터 시간당 5달러며 주중 종일주차 시 15달러.

W portlandonline.com/smartpark

Gas Station 주유
흔히 미국 하면 셀프 주요소를 떠올리지만 오리건에서는 셀프 주유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처럼 주유기 앞에 정차한 후 원하는 요금 혹은 주유량을 요청하고 기다리면 된다.

Safety 안전 규정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은 핸드폰 통화는 단속 대상이다. 과속 카메라는 그리 많지 않지만 속도 위반 단속 경찰차는 간간이 보이는 정도. 느리게 가는 앞차 뒤에 바싹 따라붙는 등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전 태도는 이곳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위험한 일로 여겨진다.

Road Condition 로드컨디션
오리건 공식 도로 지도에 나온 모든 도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2륜 구동 차로 이용할 수 있지만 내륙 산간 지방의 몇몇 도로는 겨울철에 이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이상 기후 등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T 800-977-6368 **W** tripcheck.com

Web 오리건 운전 정보
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 oregon. gov/odot

Travel Info 4

Smart Enough?

웹과 모바일 자료로 똑똑하게 여행 하기

Smarter Device, Smarter Travel
여행의 새 트렌드

스마트폰이나 PDA 같은 모바일 컴퓨팅 환경을 갖춘 여행자라면 이제 길에서 담요 만한 지도를 들고 여행자 티 팍팍 내며 길을 찾을 필요도, 여행 책자를 보고 찾아간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 황당해할 필요도 없다. 대신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PDF 지도 파일을 다운받아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확대해 가며 길을 익히고, 트위터twitter로 "얌힐 스트리트Yamhill Street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브런치 레스토랑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물론 영어로)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의 실시간의 답변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한국 같은 비 영어권 여행객에게 차라리 축복이다.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걸 물어보긴 힘들어도,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영문으로 글을 써서 질문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Web Source 웹 소스
오리건 관광청 traveloregon.com과 포틀랜드 관광청 travel-portland.com 등의 홈페이지는 자료 업데이트가 신속한 편이다. 오리건 관광청의 'Travel Tool'이나 포틀랜드 관광청의 'Visitor Resources' 란에서 상세 지도와 가이드북 등을 PDF 포맷으로 내려 받고, 그 외 지역 관광청의 홈페이지 링크도 찾을 수 있다. 특히 PDF 버전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오리건 관광청의 'Oregon Destination Guide(traveloregon.com/Free-Travel-Guides.aspx)' 나 포틀랜드 관광청의 'Travel Portland (travelportland.com/visitors/images/travel_portland_mag.pdf)' 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Wi-Fi & Data Roaming
무선랜 이용하기

스마트폰이나 PDA, 노트북으로 무선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광안내소나 관공서에서도 대부분 가능하다. 대부분의 호텔이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무선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체크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에서 스마트폰 이용시 반드시 '데이터 로밍'을 꺼 놓아야 한다는 것. 비상식적으로 비싼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간단한 이메일 체크 정도로도 몇 만 원이 쉽게 부과될 수 있다.

Twitter & Facebook
최신의 여행을 위해

2009년에 포틀랜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트위지터 센터Twisitor Center' 를 오픈했다(트위지터는 트윗twit과 비지터visitor의 합성어). 포틀랜드에 관해 궁금한 게 있는 트위터 이용자가 '#inpdx' 태그를 붙여 트윗을 하면 신속한 답을 얻는다. 예컨대 자신의 트위터로 "Looking for a sandwich shop with free Wi-Fi, any suggestions? #inpdx"라고 트윗을 하면, 스태프가 – 혹은 이를 검색한 포틀랜드 시민이나 전 세계 트위터 유저 등 누구든지! – 추천 장소를 찾아 답을 주는 식이다.

홈페이지(travelportland.com/visitors/twitter.html)에 자세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관광청 트위터 **@travelportland, @traveloregon**
관광청 페이스북 **facebook.com/traveloregon, facebook.com/travelportland**
기타 도움이 될만한 트위터
@pdxfoodcarts (시내 푸드 카트 정보)
@pdxbreakfastguy (아침 식사 정보)
@urbandrinkspdx (브루어리 정보)
@portlandgigs (라이브 공연 정보)
@pdxcommute (교통 정보 및 속보)

Take Your Own Story

오리건, 당신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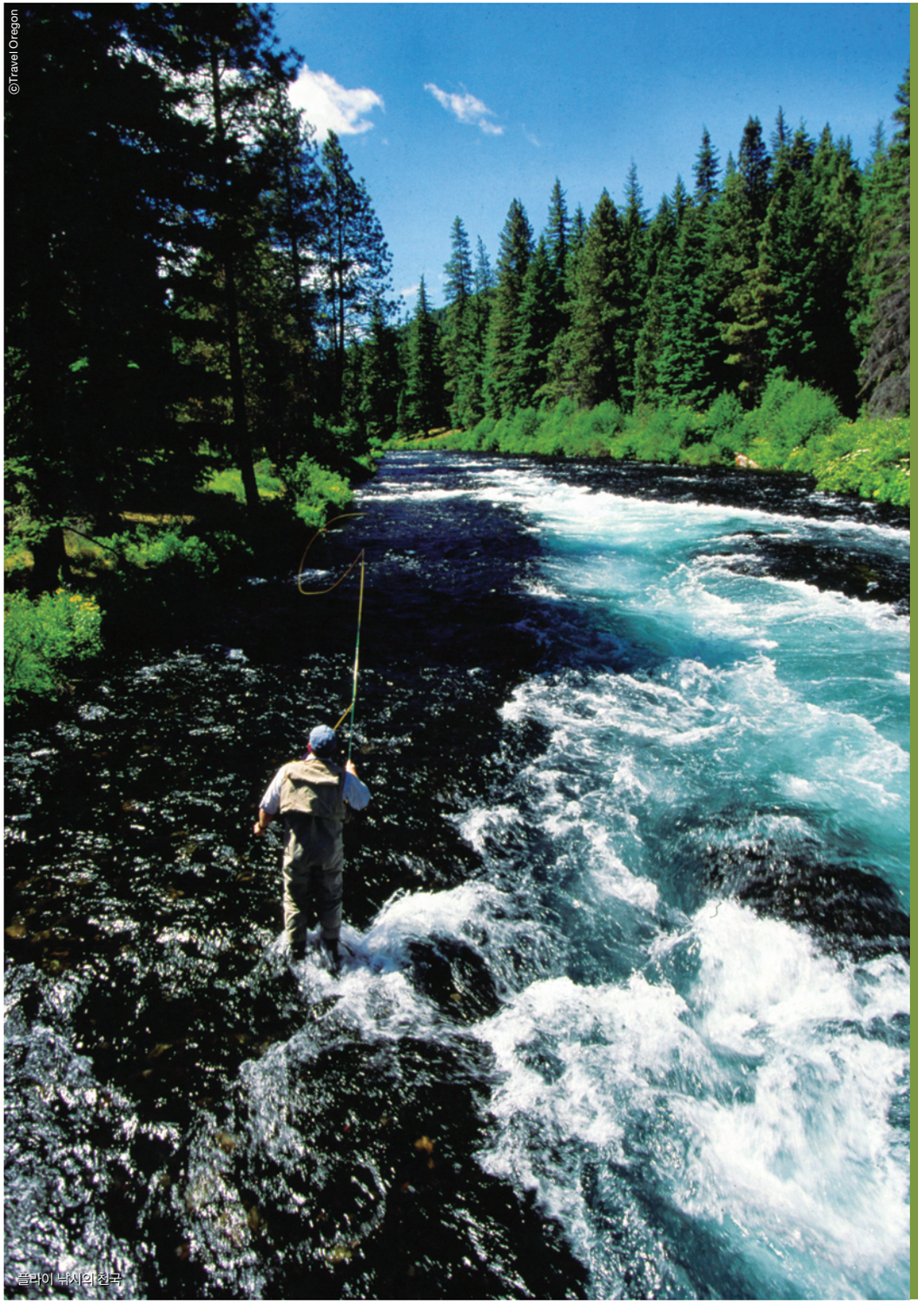
TAKE ONE A Fresh Breath
거짓말 같은 다양함에 감탄하다
30분 만에 풍경이 바뀐다. 한눈을 팔면 흔치 않은 풍경을 놓친다. 산, 바다, 강, 그리고 눈과 비와 태양. 오리건의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은 끊임없는 감탄을 이끌어 낸다. 24

TAKE TWO Portland, Scent of Roses
오래 맘속에 남을 장밋빛 꿈의 도시
장미 향기처럼 달콤한 매혹의 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시. 포틀랜드는 쾌적하고 자유로운 동시에 도시적 예민함을 잃지 않은 도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40

TAKE THREE Blaze a Taste
깜짝 놀랄만한 사실: 오리건은 미식 천국이다
미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곳이 오리건이다. 담백하고 건강한 고급 요리, 최고 수준의 와인과 맥주를 모두 가진 도시는 세상에 그리 흔치 않다. 64

TAKE FOUR Art + Shopping
쇼핑도 예술도, 당신 맘대로
오리건은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 전체가 면세점 같은 쇼핑 환경을 갖고 있다. 대형 아울렛부터 세련된 백화점과 디자이너 부티크 숍은 당신의 지갑을 끊임없이 염탐한다. 68

TAKE FIVE Wild & Winded
여행이 '구석구석'이어야만 하는 이유
포틀랜드가 오리건 여행의 처음과 끝이라 생각하지 말길. 놀랄만큼 다양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상상 외의 볼거리가 곳곳에 있다. 게다가 이곳은 골프 등 스포츠의 천국이다. 80



플라이 낚시의 천국

TAKE ONE A Fresh Breath

»

TAKE ONE

A Fresh Breath

Nature & Scenic Destinations

거짓말 같은 다양함에 감탄하다

오리건 주엔 미 대륙 전체가 들어 있다. 풍선껌 불 듯 한껏 부풀린 과장이 아니다. 태평양 연안에는 기암 괴석이 가득한 바위 절벽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사막 같은 모래 언덕이 있고, 그 옆에 남북으로 뻗은 캐스케이드 산맥에선 거의 일 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다. 북쪽에는 2,000킬로미터 길이의 컬럼비아 강의 웅장한 협곡이, 동쪽 끝에는 북미에서 가장 깊은 계곡 – 그랜드 캐년이 아니다! – 인 헬스 캐년이 있다. 이런 오리건을 차를 타고 동에서 서로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닐곱 시간의 여행 동안 끝이 안 보이는 계곡과 거대한 강, 만년설 덮인 화산과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와 태평양의 바다를 모두 볼 수 있으니, 일주일 간의 대륙횡단 열차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이곳을 여행하며 당신이 할 일이라곤 의심일랑 접어두고 오로지 감상, 그리고 감탄하는 일뿐이다.

01

02

컬럼비아 리버 고지

03

Columbia River Gorge

말 많은 강, 말이 새지 않는 폭포

오리건과 워싱턴 주의 경계를 따라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컬럼비아 강 양쪽으로 130여 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장대한 협곡. 이 넓고 긴 협곡을 따라 I84(인터스테이트 84)가 달린다. 멀리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뻗어있는 그 길 위에 서면 차창 한 쪽엔 컬럼비아 강이, 다른 쪽엔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번갈아 가며 시선을 끈다. 숲이었다가 황무지였다가 끝없이 펼쳐진 카펫 같은 농경지였다가 때론 웅장한 폭포까지, 한결 같은 큰 강과 대비를 이루는 풍경은 끝없이 재잘거리는 연인처럼 여행자가 무료해 할 틈을 주지 않는다.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 온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멀노마Multnomah 폭포는 이런 컬럼비아 강 협곡의 풍경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다. 189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2층 폭포의 물줄기는 동료를 독려하는 인디언의 고함소리 같이 선명하게 공기를 가른다. 폭포 중간 구름다리 위, 온 몸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고함소리 앞은 소리의 블랙홀이다. 어떠한 속내를 털어놓아도 비밀이 지켜지기에, 당신은 그리운 어떤 이의 이름을 막 외쳐보고 싶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토해놓고 싶은 비밀이 많아서일까. 매 년 이곳을 찾는 이들의 수는 200만 명에 이른다.

01, 02, 05 길고 넓은 컬럼비아 강이 만든 거대한 협곡, 컬럼비아 리버 고지는 포틀랜드 서쪽의 수상 레포츠 메카다. 리버프론트 파크Riverfront Park(I84 Exit 85)와 에이버리 파크Avery Park, 셀릴로 파크Celilo Park 등이 윈드 서핑으로 유명하다. 당일의 바람 체크는 iwindsurf.com에서 하면 된다. **03** 수직으로 떨어지는 멀노마 폭포의 중간에 걸린 다리. 이 다리에서 시작되는 하이킹 트레일도 있다. **04** I84를 따라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저런 야생 동물들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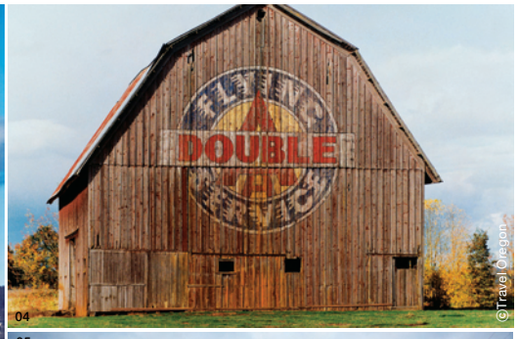
04

05

01

02

03



04

05

01 흔히 보던 지층이 아니라 진짜 페인트를 뿌린 것만 같기에 이름도 페인티드 힐이다. 바위가 밖으로 드러난 산들마다 저런 줄무늬가 이어져, 마치 거대한 화폭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 **02** 도로변 곳곳에 작은 캠핑장과 피크닉 장소가 있다. **03, 04, 05** 끝없이 뻗어 있는 길. 이 길 위에서 30분만 한눈을 팔아도 차창 밖 풍경이 눈 쌓인 벌판이었다가 푸른 초원이었다가 험준한 산지로, 수시로 바뀐다. 또한 간간이 보이는 '사람 사는 흔적'들은 지루함을 덜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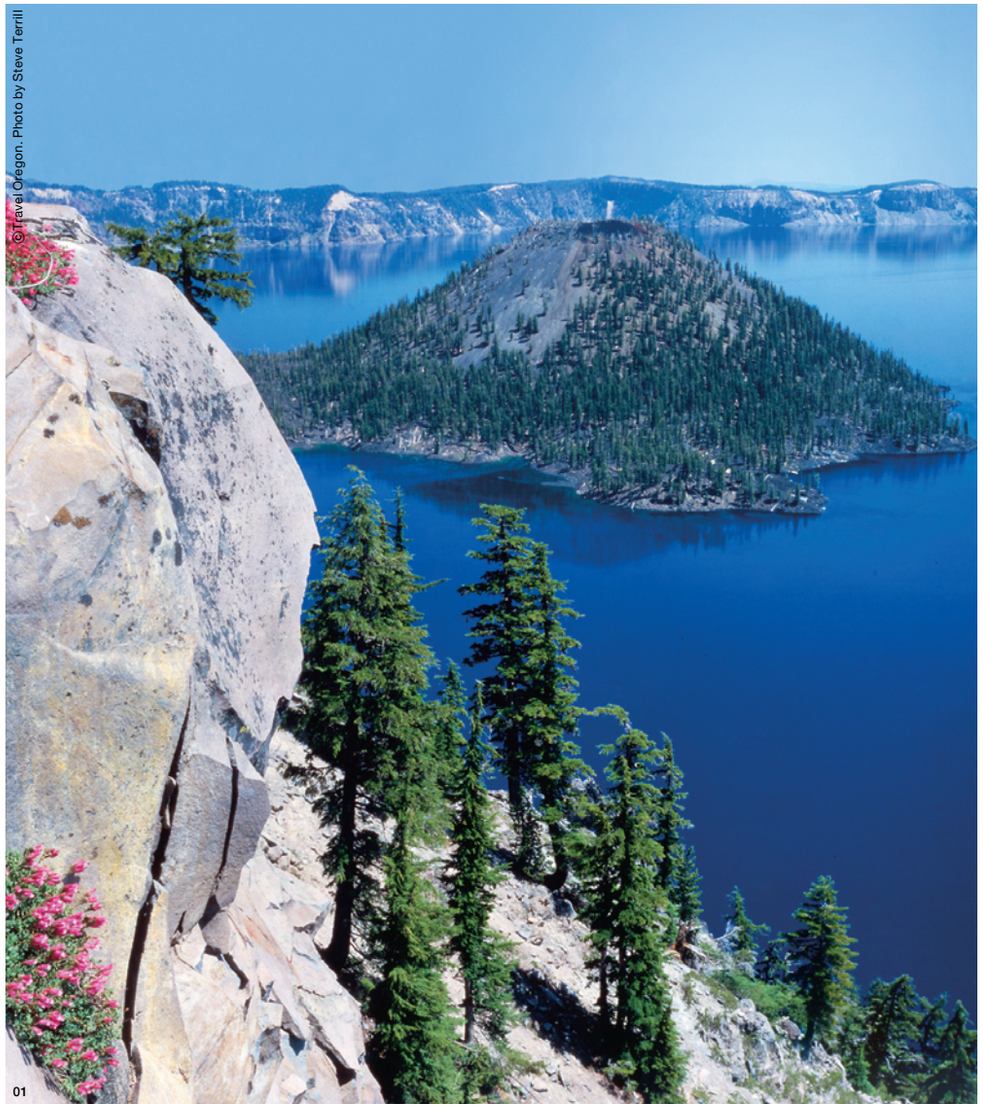
존 데이 포슬 베드

John Day Fossil Beds National Monument

자연의 추상

'자연의 선택은 그 어떤 의도도 갖지 않는다'는 도킨스적 도그마를 굳게 믿는 편이지만, 오리건 동부의 존 데이 화석층 천연 기념물 지역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한번쯤 품지 않을 수 없다. 가로세로 백여 킬로미터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위층 표면엔 울긋불긋한 색과 무늬가 잭슨 폴락의 스프레이처럼 입혀져 있고, 그 속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2천 2백여 종이 넘는 수많은 생명체의 화석이 깊게 잠들어 있다. 아름답거나 경이롭거나 경외스럽거나. 자연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선물은 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처럼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 묻힌 시간의 장엄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장소는 그리 흔치 않다. '그 분'의 선물? 하고 물어보게 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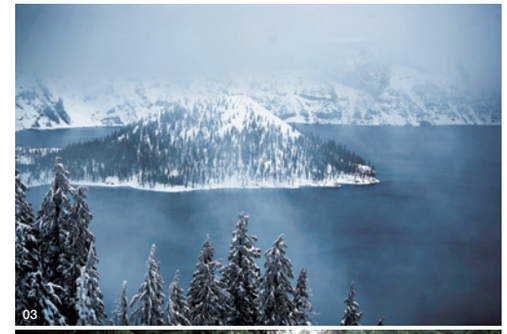
토머스 콘돈 고생물학 센터Thomas Condon Paleontology Center에서 5천 4백만 년 전부터 6백만 년 전까지 지구를 수놓았던 생명체들의 살아있는 듯한 화석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지만, 카메라와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짊어지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보통 땅 위에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19번 하이웨이가 거대한 바위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매스콜 포메이션 오버룩Mascall Formation Overlook, 성채처럼 강 옆에 우뚝 솟은 캐세드럴 록Cathedral Rock, 그리고 햇빛에 따라 선명한 핏빛에서 우아한 레드 벨벳으로 색이 변하는 멋진 띠를 두른 페인티드 힐Painted Hill을 놓치지 말 것.


©Travel Oregon. Photo by Steve Terrill
01

크레이터 레이크

02

01, 03, 04 계절마다 드라마틱하게 옷을 바꿔 입는 크레이터 레이크의 모습. 봄부터 가을까지 그림같은 풍경을 자랑하지만 눈 덮인 겨울 모습도 아름답다. 겨울철 방문 시에는 차량 입장료(한 대당 10달러)를 받지 않는다. **02, 05** 여름철에는 하이킹을, 겨울철에는 스노슈잉 등의 설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북쪽의 벤드나 선리버에서 이 쪽으로 오는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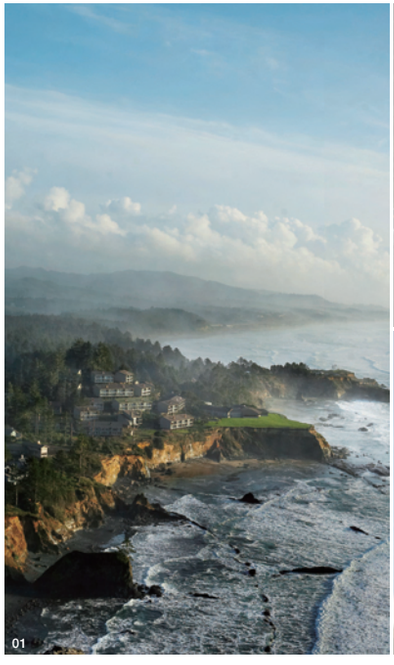
Crater Lake National Park

빠져들고 싶은, 깊고 푸른 눈

오리건 주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캐스케이드 산맥Cascade Range은 이 땅의 드라마틱한 지형을 만든 장본인이다. 산맥 북쪽 끝의 후드 산Mt. Hood은 포틀랜드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선물했고 중간쯤의 배철러 산Mt Bachelor은 세계적인 스키장과 리조트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남쪽 끝, 높은 산들 사이에 꼭꼭 숨겨진 보물이 바로 크레이터 호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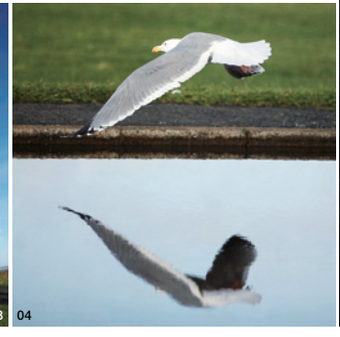
깊이가 592미터로, 미국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크레이터 호수는 사시사철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들로 붐빈다. 흔히들 볼 수 있는 사진은 여름 혹은 가을철 풍경이지만 계절에 맞춰 네 번쯤 가 보고 나서야 진짜 호수의 매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호수의 얼굴은 다양하다. 정답을 알고 싶어, 언제 오는 게 가장 좋으냐고 호수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의 수는 사람 수와 항상 같았다. 저마다 이런 저런 추억들을 끄집어 내며 자신의 대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짙푸른 수면에 아로새겨진 단풍과 하늘을 보든, 키 높이로 쌓인 눈 속에서도 얼지 않은 채 매혹을 발산하는 침묵의 호수를 보든, 크레이터 호수는 오로지 꽃을 찾는 자만의 정답으로 오래 오래 추억될 장소다.

05


01

02

03


04

06

퍼시픽 코스트

01, 02 아터 크레슨트 루프 도로변에 있는 케이프 파울웨더Cape Foulweather에서 바라본 해변. 근사한 리조트와 저택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다. 03 야퀴나 헤드 등대Yaquina Head Lighthouse(입장료 차 한 대당 7달러). 오리건 해변에는 이런 멋진 등대들이 많다. 등대 내부를 둘러보는 무료 투어 프로그램도 있다. 04, 06, 07, 08 바닷가의 여러 가지 풍경들 05 오리건 해변 북쪽 끝 가까이에 있는 캐논 비치. 오리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다. 09 저녁을 맞은 뉴포트 항구

The Oregon Co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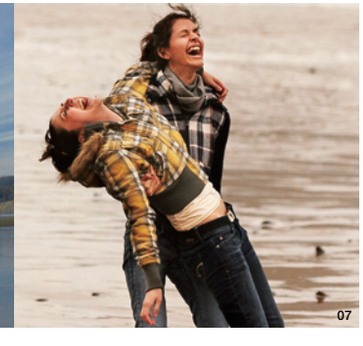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101가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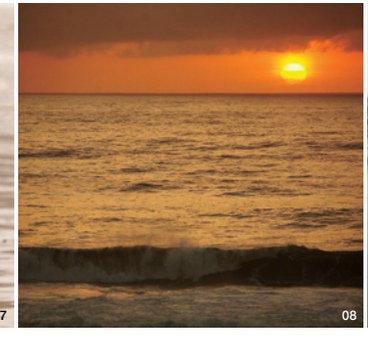
일백 하고도 하나. 어쩐지 특별할 것만 같은 이 숫자는 오리건의 태평양 연안을 여행하는 키워드다. 미국에서 단 하나뿐인 일백 번 대 고속도로인 하이웨이 101을 따라가면 그 숫자만큼이나 특별한 오리건의 해안을 모두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틀랜드에서 서북쪽으로 1백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의 캐논 비치Cannon Beach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101 여행'은 링컨 시티Lincoln City와 세계에서 제일 작은 항구인 디포 베이Depoe Bay, 뉴포트Newport, 그리고 눈을 의심케 하는 사막이 펼쳐지는 플로렌스의 듄스 시티Dunes City를 지나 멀리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까지도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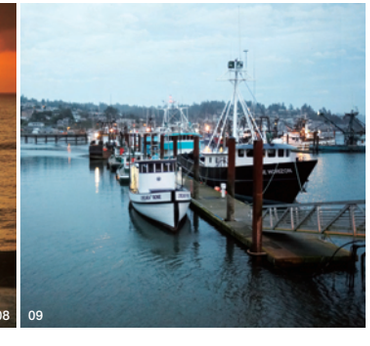
캐논 비치의 기암괴석이 아니더라도, 이 도로 옆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바위, 도시와 동물과 사람들의 모습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내내 차를 세우고 싶게 만든다. 이른 봄이면 배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자그마한 디포 베이에 머무르며 고래 구경을 가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해질 무렵 뉴포트(04)부근의 아터 크레슨트 루프Otter Crescent Loop를 지난다면 거기에 집을 한 채 사고 싶어 질지도 모른다. 모로코의 사막처럼 바다 곁에 광활하게 펼쳐진 오리건 듄스 휴양지Oregon Dunes National Recreation Area (87)의 모래 언덕에선? 멋지게 머플러를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질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볼 수 있다!).

05

©Travel Oregon


07


08


09

01

02

01, 04 '집 나간 내 친구'를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그 산. 포틀랜드와 그 근처 어디에서든 보이는 이 잘 생긴 산은 시내에서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있다. **02** 후드 산은 겨울 스포츠와 하이킹의 천국이다. **03** 피톡 맨션에서 바라 본 후드 산의 모습 **05** 에이리얼 트램Aerial Tram(**W** portlandtram. org, 왕복 4달러)을 타고 오리건 의료 과학 대학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이 있는 언덕 위로 가면 후드 산과 세인트헬렌 산과 포틀랜드 시가지가 한눈에 보인다.

03

04

후드 산

Mt. Hood

도심에서 한 시간 거리의 레포츠 천국

산도 외모로 판별할 수 있다면 포틀랜드 동쪽에 서 있는 후드 산은 '얼짱'급이다. 평지에서부터 고깔모자처럼 우뚝 솟아오른 3,429미터 높이의 이 산은 도쿄의 후지산이 그러하듯, 늘 포틀랜드의 스카이라인 뒤에 멋진 병풍처럼 서 있다. "단지 저 산이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 일본에 16년 간 살다가 포틀랜드로 돌아온 어느 미국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다. 포틀랜드의 피톡 맨션Pittock Mansion 104에 가 보면, 아마 누구라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틀랜드에서라면 누구라도, 빌딩숲 너머로 보이는 저 산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질 것이다. 후드 산에 다가가 보면 이렇게 웅장한 산이 도시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다. 거의 일 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슬로프와 바로 옆을 흐르는 컬럼비아 강에서의 수상 레포츠, 그리고 그림처럼 산 속에 안긴 롯지를 하루 코스로 즐길 수 있으니까.

05

01

02

03

04

01 포틀랜드 북서쪽, 윌러맷 강이 컬럼비아 강으로 합류하기 전의 마지막 다리인 세인트 존스 브리지St. Johns Bridge.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를 디자인한 그 사람이다. 멀리 보이는 후드 산과 함께 언제나 사랑 받는 포토 스폿이다. 02 페인티드 힐 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 앞의 귀여운 우편함 03 오리건 코스트 곳곳에 있는 바닷가 조망 포인트. 캠핑카 여행도 오리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다. 04 크레이터 레이크에서의 스노슈잉

추천 일정

Itinerary Recommendation

추천 여행 일정 – 오리건의 다양한 자연을 중심으로

Greater Portland
포틀랜드 근교 추천 일정

포틀랜드(1박)–컬럼비아 강–멀노마 폭포 26 –후드 산(1박)–윌러맷 밸리 와이너리 68 –포틀랜드(1박)

The Oregon Coast
태평양 연안 추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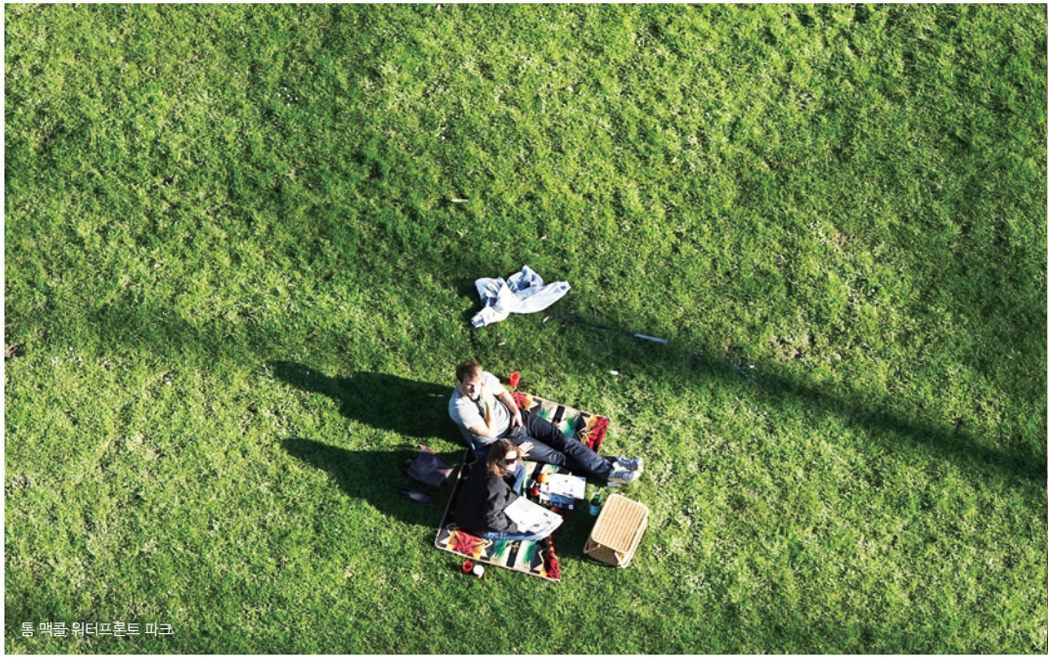
포틀랜드(1박)–아스토리아Astoria–캐논 비치(1박)–틸라묵Tillamook–링컨시티 70 –뉴포트(1박) 104 –디포 베이–헤세타 등대 103 –오리건 듄 87 –플로렌스(1박)–유진 105 –세일럼Salem(1박)–우드번 아울렛 74 –포틀랜드(1박)

Eastern Oregon
오리건 동부 추천 일정

포틀랜드(1박)–멀노마 폭포–덜레스The Dalles(1박)–클래르노Clarno–서비스 크릭 28 –스프레이–데이빌–존 데이(1박)–미첼–프라인빌–벤드Bend(1박) 84 –포틀랜드(1박)

Southern Oregon
오리건 남부 추천 일정

포틀랜드(1박)–유진(1박)–애쉬랜드(1박) 103 –클라매스 폴즈Klamath Falls–크레이터 레이크(1박) 31 –벤드(1박) 84 –포틀랜드(1박)


톰 맥콜 워터프론트 파크

링컨시티 해변

Travel Information 여행 정보

WEB SOURCE
인터넷 정보

Columbia River Gorge
Historic Columbia River Highway
oregon.gov/odot/hwy/hcrh
Columbia River Gorge Visitors Association
crgva.org
Columbia Gorge Discovery Museum
gorgediscovery.org
Multnomah Falls
multnomahfalls.org

John Day Fossil Beds
Thomas Condon Paleontology Center
nps.gov/joda
Painted Hills
nps.gov/joda/planyourvisit/painted hills unit.htm

Crater Lake National Park
nps.gov/crla
The Oregon Coast
visittheoregoncoast.com

Mt. Hood
Mt. Hood Territory
mthoodterritory.com
Mt. Hood Scenic Railroad
mthoodrr.com

COWBOY & WESTERN HISTORY
카우보이 문화 및 오리건 역사 88

Hamley's Western Store
오리지널 수제 카우보이 코스튬과 연장들을 구경하고 살 수 있는 곳
A 30 SE Court Avenue, Pendleton
T 541–278–1100
W hamleyco.com

Pendleton Underground Tours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도시의 모든 '쉬쉬 하는 것들'이 모여있던 지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역사 투어
A 37 SW Emigrant Ave., Pendleton
T 800–226–6398
W pendletonunderground–tours.org

HOTEL
호텔 (레스토랑 등은 94**)**

Geiser Grand Hotel
까마득한 천장과 지붕을 가진, 그 시작이 서부 개척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호텔
A 1996 Main Street, Baker City
T 541–523–1889
W geisergrand.com

Wildhorse Resort & Casino
오리건의 여러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지노 및 리조트 중 하나
A 7277 Highway 331, Pendleton
T 541–966–9748
W wildhorseresort.com

Five Pine Lodges
솔향기 가득한 침엽수림 속에 스파, 롯지, 레스토랑, 극장 등을 갖추고 있다.
A 1021 Desperado Trail, Sisters
T 866–974–5900
W fivepinelodge.com

The Oxford Hotel
에코–시크Eco-Chic를 모토로 최근에 지어진 스타일리시한 호텔
A 10 NW Minnesota Avenue, Bend
T 877–440–8436
W oxfordhotelbend.com

Valley River Inn
윌러멧 강과 오웬 로즈 가든Owen Rose Garden에 바로 면해있어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이 창 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아침이 매력이다.
A 1000 Valley River Way, Eugene
T 541–341–3472
W valleyriverinn.com

Ashland Springs Hotel
로그 리버 밸리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 도시, 애쉬랜드 103를 대표하는 유럽 스타일 호텔. 애쉬랜드의 예쁜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방 전경이 훌륭하다.
A 212 East Main Street, Ashland
T 541–488–1700
W ashlandspringshotel.com

Shilo Inn Suites Hotel Oceanfront Resort - Newport
뉴포트 104 앞바다의 멋진 태평양 바다를 굽어보고 서 있어 해질녘과 아침 무렵 탁 트인 바다 쪽 풍경이 압권이다.
A 536 SW Elizabeth, Newport
T 541–265–7701
W shiloinns.com

포틀랜드 차이니즈 가든

TAKE TWO Portland, Scent of Ros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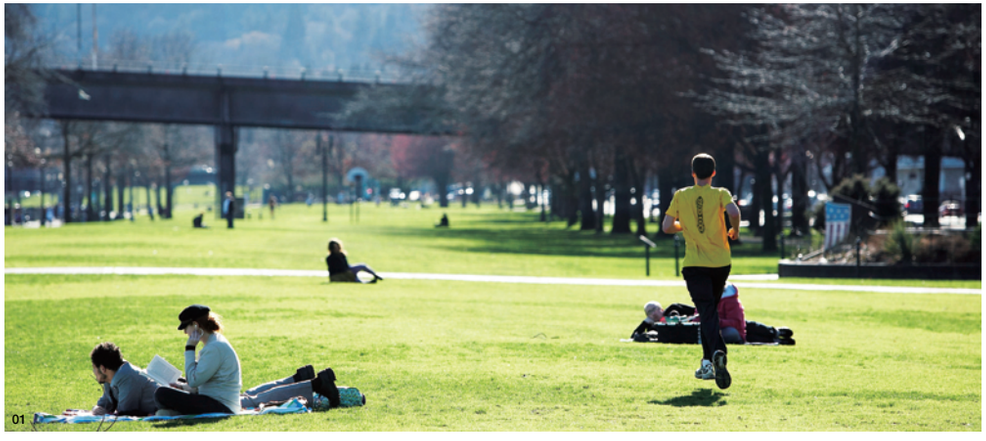
TAKE TWO

Portland, Scent of Roses

Destinations in Portland

오래 맘속에 남을 장밋빛 꿈의 도시

장미의 도시City of Roses라 불리는 포틀랜드는 장미 향기만큼이나 달콤한 매혹을 가진 도시다.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 나오기 힘든 이 향기의 방향은 전방위적이다. 5월이면 로즈 가든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에서부터 퍼져 나와 도시를 가득 채울 장미 향기 외에도, 수많은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흘러나오는 하우스 맥주의 향기, 친환경 건물들을 뒤덮은 나무가 내뿜는 상쾌한 공기, 그리고 재즈와 영화와 히피 문화를 꽃피운 자유로운 분위기는 포틀랜드 사람들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하고, 또 더 깊이 숨 쉬게 만든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곳에서 밤거리를 걸을 때 긴장의 심호흡을 할 필요가 없고, 길을 찾느라 차를 천천히 몰아도 뒷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으며, 힙 한 바에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프렌치 75'를 주문한다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 참 살기 좋은 곳에 참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에서라면, 언제 어느 때든 장밋빛 환상에 마음껏 몸을 맡기길.


01

그린 스테이트

02

03

04

05

01 톰 맥콜 워터프론트 파크Gov. Tom McCall Waterfront Park. 포틀랜드를 가로지르는 윌러멧 강가의 아름다운 공원이다. 사시사철,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푸른 잔디밭 위에서 포틀랜드 사람들은 책을 읽고, 낮잠을 자고, 개와 함께 달리거나 자전거를 몬다. 02, 04 맥스MAX와 자전거. 포틀랜드를 더욱 녹색으로 만드는 두 축. 03 포틀랜드의 푸드 카트 중 하나. 길에서 사서 먹는 음식조차 다양하고 훌륭하다. 05 포틀랜드 주립 대학 06 앵크니 스퀘어Ankeny Square의 스키드모어 분수Skidmore Fountain

06

Eco and the City

이방인의 마음도 녹색으로 물들이는 친환경 도시

포틀랜드 시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조깅하는 사람과 맥주 마시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도시로 뽑혔을 만큼 포틀랜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미국 최초로 빈 병과 캔을 돈으로 바꿔준 곳이기도 하다). 2008년 통계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 물은 깨끗하고 공기는 투명하며 분위기는 쾌적할 수밖에 없다.

깨끗한 환경과 녹색 성장에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여 온 이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얻는 혜택은 생각 외로 직접적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도심의 무료 승차 구역18덕에, 여타 관광 도시에서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교통 패스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거리 곳곳에는 일 년 내내 깨끗한 물이 솟는 식수대가 있어 슈퍼마켓에서 물을 사 먹을 필요도 없다. 세계 최대의 개인 서점인 파월 북스토어를 비롯한 어지간한 서점이나 레코드숍이 모두 갖추고 있는 중고 서적 코너에선 한국에서 찾기 힘든 희귀한 음반과 서적을 찾을 수 있다. 이 모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쓸 줄 아는 포틀랜드 사람들의 습성 덕분이다. '친환경'이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포틀랜드 사람들은 벌써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

Joy @ the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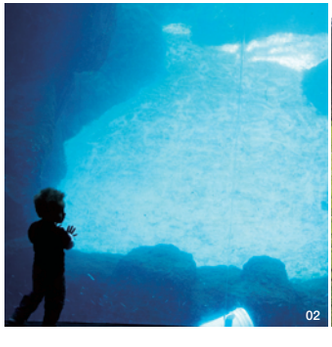
푸른 재미에 빠져 보기

'Green' 같은 수식어를 포틀랜드에 마구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친환경 말고도 또 있다. 포틀랜드 시내엔 무려 15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녹지와 288개의 공원과 267킬로미터 길이의 산책로가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겨우' 공원? 하고 평가절하 하지 말길. 포틀랜드를 그린 시티로 만들어 준 이 녹지 공간은 여유 있고 자유로운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의 전시장이다. '사람'이 궁금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한번쯤 뒤돌아 보는 것이 여행의 목적 중 하나라면, 적어도 포틀랜드에서만큼은 공원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사시사철 푸른 공원들의 푸른 향기는 콧속에 남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간지럽히리라 장담할 수 있다.

도시의 중심인 파이오니어 광장에서 십여 분만 걸으면 닿는 차이니즈 가든이나 톰 맥콜 워터프론트 파크, 강 건너편의 이스트뱅크 에스플러네이드Eastbank Esplanade는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시작해 모리슨Morrison 다리와 북쪽의 스틸Steel 다리를 잇는 약 5킬로미터 길이의 강변 산책로는 포틀랜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인 동시에 가장 인기 있는 포토 스폿이다. 무엇보다 도심 서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대한 규모의 워싱턴 파크를 놓치지 말 것. 세계 최고의 장미 정원과 일본식 정원, 오리건 동물원, 월드 포레스트리 센터와 피톡 맨션104 등 가족이 하루를 꽉 차게 보내기에 충분한 볼거리들로 가득한 '녹색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다.

01

01 다운타운 서쪽, 포틀랜드 주립 대학교에서 뻗어나온 사우스 파크 블록South Park Blocks
02, 03 워싱턴 파크 내에 있는 오리건 동물원. 북미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시안 코끼리를 출산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04, 05 재패니즈 가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길과 의자와 돌다리 사이를 건너, 20여 분의 짧은 산책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곳
06 포틀랜드 시내는 공원과 놀이터 천지다. 달리 말하면 아이와 어머니들의 천국이란 뜻도 된다. 07 도심 속의 작은 녹색 섬, 차이니즈 가든



02

03

04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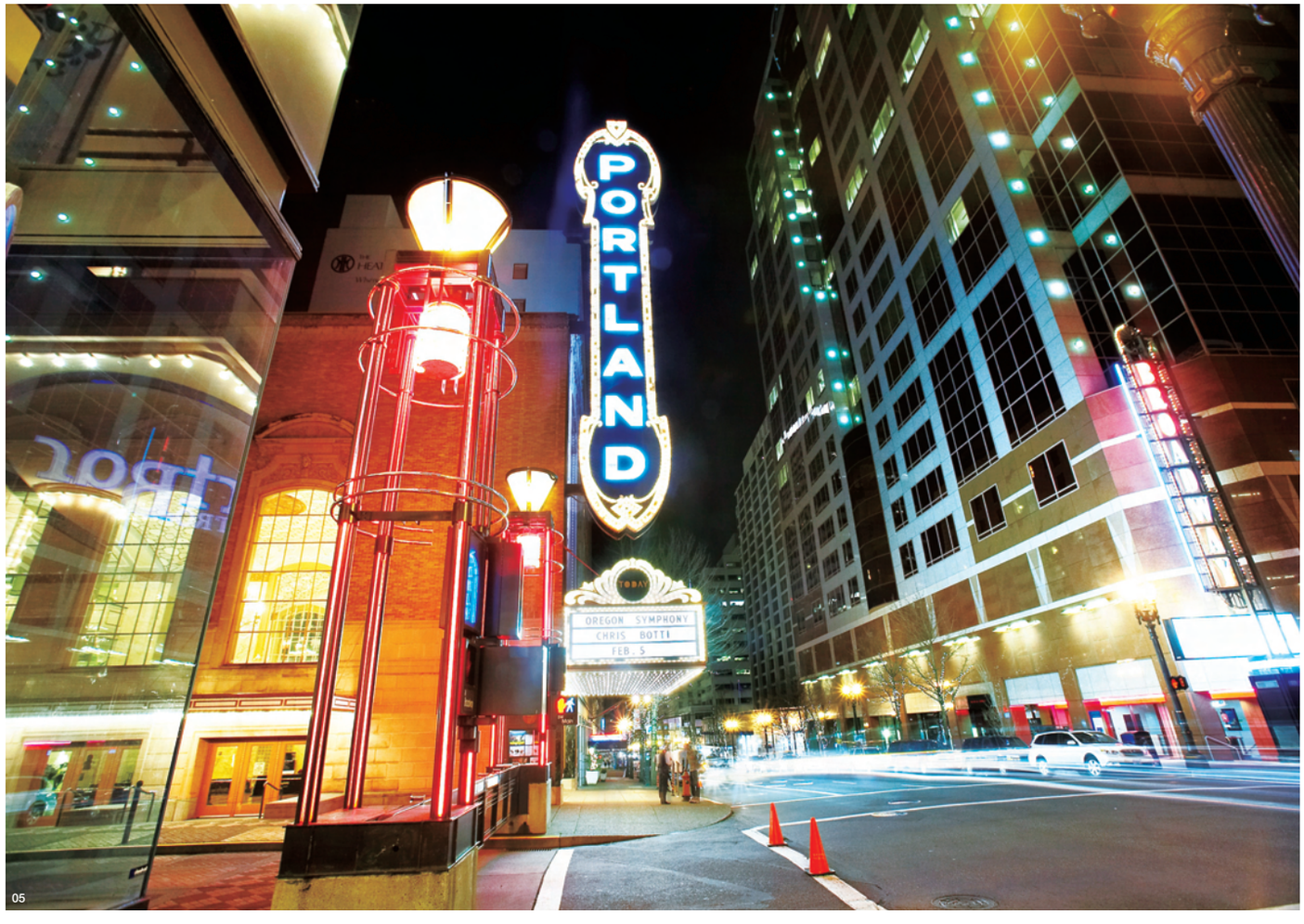
정원도시

07

01

02

03



05

예술과 공연

04

01 세계적인 영화 감독 구스 반 산트도, 이런 클래식 영화만을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에서 감독의 꿈을 키웠을지 누가 알겠는가. 02 라이브 바, 재즈 바에서부터 스트립 바까지. 포틀랜드의 언더그라운드 공연 문화는 깊고도 넓다. 03 포틀랜드 재즈 씬의 큰 나무, 지미 맥스Jimmy Mak's 재즈 바. 식사와 함께 유명 뮤지션의 공연을 볼 수 있다. 04 호손Hawthorne 거리에서 만난 거리의 악사 05 포틀랜드 도심의 상징, 아를렌 슈니처 콘서트 홀 Arlene Schnitzer Concert Hall

Free Your Soul

엘리엇 스미스, 구스 반 산트, 그리고 자유

도심 인구 50여 만 명의 포틀랜드는 여러 가지 이색적인 리스트에서 미국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녹지 비율 같은 심심한(?) 것 말고 좀 특이한 것들 말이다. 예컨대 단위 인구당 브루어리의 수라든지 수제 맥주 생산량이 그렇고, 속닥속닥 귓속말로만 들을 수 있는 단위 인구당 최고로 많은 수의 스트립 바 같은 기록 등등. 음지와 양지를 망라하는 이 모든 기록들은 결국 이 도시가 더없이 자유로운 도시임을 말해준다. 자유, 저항과 록rock의 정신 하면 흔히 이웃 도시 시애틀을 떠올리지만 알고 보면 포틀랜드도 만만치가 않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엘리엇 스미스Elliott Smith나 구스 반 산트Gus Van Sant, 심슨 가족The Simpsons의 창조자 맷 그뢰닝Mat Groening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사랑하게 만든 토양이다.

그래서 포틀랜드는 재즈, 록, 심포니, 연극, 영화, 미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단한 수준을 자랑한다. 더 멋진 것은 이토록 수준 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 콘서트 홀 같은 큰 공연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목 골목의 펍과 라이브 뮤직 바에서는 미래의 엘리엇 스미스가 관객들과 눈을 맞춰 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존 콜트레인과 함께 연주하기도 했던 멜 브라운Mel Brown 같은 스타마저도 20~30 명이 둘러 앉은 재즈 바에서 드럼을 친다. 예술이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 흥이 멀리 있지 않은 도시 포틀랜드는 그래서 밤에 더욱 매력적이다.

01

02

03

04

05

Local Food Enthusiasm

미국식 신토불이를 이야기하다

5달러짜리 도시락에서부터 수십 달러를 넘어가는 명 셰프의 코스 요리까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정통 음식에서부터 오리건의 땅과 바다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든 퍼시픽 노스웨스트 퀴진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포틀랜드의 다이닝 씬은 잔칫집 밥상마냥 풍요롭다. 미국인들이야 뭐, 먹는 거 하나는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다. 손바닥 만한 펍에서도 직접 하우스 맥주를 만들고 57 커피 전문점들은 원두를 원산지에서 직접 공수해 로스팅을 하며, 대부분의 식재료를 주 내에서 조달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신토불이'적 사고마저 갖고 있으니, 이 도시에서 뭘 먹는다는 건 언제나 즐거울 일일 수밖에 없다.

"이곳 사람들은 음식 프랜차이즈 회사를 좋아하지 않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좀처럼 발을 못 붙이는 곳이지." 다운타운의 중심인 파이오니어 광장에 자리잡은 스타벅스 간판이 빤히 보이는 곳에서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그 스타벅스 빼고는, 실제로 포틀랜드에는 여느 미국 도시에 비해 대형 음식 체인들의 수가 적다. 대신 피자마저 친환경적이라 자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팬케익을 곁들인 스칸디나비아 식 아침을 파는 곳도 있다. '패스트' 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가득한 포틀랜드의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뭘 먹을지를 고르는 건 고민이 아니라 축복이다.

01 요즘 가장 힙한 저녁 만남 장소인 소스박스Saucebox. 일본식 스시(9~14달러)에서부터 타피오카 덤플링(8달러)과 코코넛 커리(17달러), 그리고 다양한 칵테일까지, '인터내셔널'한 메뉴를 선보이는 장소다. **02, 04** 데이비스 스트릿 터번Davis Street Tavern의 셰프 가브리엘 카푸스트카가 선보인 전채요리인 스파이시 칼라마리(10달러)와 스윗브레드(13달러)와 튜나 **03** 정말로 진한, 제대로 된 초콜릿 드링크를 맛볼 수 있는 카카오Cacao **05** 커피와 빵. 아침 커피숍의 흔한 풍경 **06** 'Brew-ha' 가이드북을 들고 '맥주 순례' 중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학생들 **07** 오리건의 특산품 사과 **08** 스텀다운 커피Stumptown Coffee. 포틀랜드는 커피 천국이기도 하다.

06

07

08

브루펍 럭키 래브라도Lucky Labrador의 악사들

톰 맥콜 워터프론트 파크

추천 일정

Itinerary Recommendation

추천 여행 일정 – 포틀랜드 중심으로

1-Day Itinerary
1일 일정

펄디스트릭트 갤러리71–워터프론트 파크–파이오니어 플레이스 쇼핑센터74–파이오니어 광장–파월 북스토어–마이크로브루어리 및 브루펍57

2-Day Itinerary
2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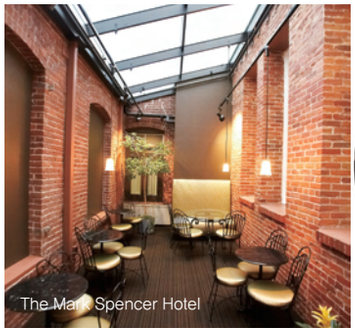
1일 일정 + 로즈가든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월드 포레스트리 센터World Forestry Center–오리건 동물원–피톡 맨션Pittock Mansio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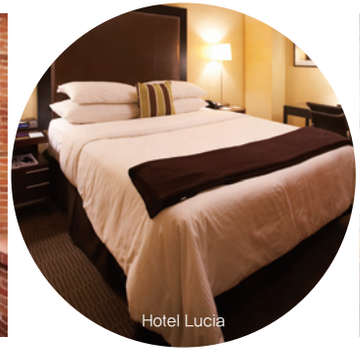
3-Day Itinerary
3일 일정

2일 일정 + 오리건 과학산업박물관 OMSI (Oregon Museum of Science & Industry)–호손 거리SE Hawthorne Blvd–마운트 테이보 파크Mt. Tabor Park–알버타 아트 디스트릭트Alberta Art District 및 미시시피 디스트릭트Mississippi District78

4-Day Itinerary
4일 일정

3일 일정 +
1. 오리건 와인 테이스팅 룸Oregon Wine Tasting Room (맥민빌 근교)–실버 폴스 스테이트 파크 Silver Falls State Park
2. 세인트 존스 브리지St. Johns Bridge–멀노마 폭포Multnomah Falls 및 컬럼비아 리버 고지26


The Mark Spencer Hotel


Hotel Lucia

Hotel deLuxe

Nines Hotel

Embassy Suites

Davis Street Tarvern

Travel Information 포틀랜드 시내 여행 정보

ECO TRAVEL
친환경 여행

Walking Tours
워킹 투어
portlandwalkingtours.com

Bicycles
자전거 투어
waterfrontbikes.com

HOTEL
호텔

Mark Spencer Hotel
예술가들의 아지트. 장기 투숙 할인이 되는 스위트 룸을 갖추고 있다.
A 409 SW 11th Ave
T 503-224-3293
W markspencer.com

Hotel Vintage Plaza
도심 한 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빼어나다.
A 422 SW Broadway
T 503-228-1212
W vintageplaza.com

Hotel Lucia
빈티지 플라자 호텔과 바로 붙어 있는 깔끔한 호텔
A 400 SW Broadway
T 503-225-1717
W hotellucia.com

Hotel deLuxe
50~60년대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한, 클래식한 아름다움이 있는 호텔
A 729 SW 15th Ave
T 503-219-2094
W hoteldeluxeportland.com

Nines Hotel
파이오니어 광장 바로 옆에 있는, 포틀랜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럭셔리 호텔. 액자만 하나 달랑 걸려 있는 1층 데스크에서 당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윗층 메인 로비로 올라가면 신천지가 펼쳐진다.
A 525 SW Morrison St
T 503-222-9996
W thenines.com

Embassy Suites
위엄 있는 직사각형 건물 속이 아름다운 카펫과 파사드로 꾸며져 있다.
A 319 SW Pine St
T 503-279-9000
W embassysuitesportland.com

Ace Hotel

미니멀리즘, 인더스트리얼리즘, 그리고 레트로. 강아지 얼굴 모양 간판이 달린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호텔은 포틀랜드에서 가장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다. 투박한 캔버스 천과 섬세한 벽화, 그리고 고풍스러우면서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특이하게도 2~3개 룸이 욕실을 공용으로 쓰는 저렴한 방도 갖추고 있다. 1층엔 포틀랜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스텀타운 커피숍의 분점도 있다.
A 1022 SW Stark St **T** 503-228-2277 **W** acehotel.com

FOOD
음식

Davis Street Tavern
허름한 창고 건물을 개조해 세련된 분위기로 다시 태어난 레스토랑. 떠들썩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바깥쪽과 조용하고 세련된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의 안쪽이 서로 구분돼 있다. 친구끼리라면 바깥쪽에서 로컬 맥주와 핑거푸드를, 연인과 함께라면 당연히 와인과 정찬이다.
A 500 NW Davis St
T 503-505-5050
W davisstreettavern.com

Hot Lips Pizza
유기농 식재료만을 이용한 '친환경 피자'를 선보인다.
A NW 10th and Irving
T 503-595-2342
W hotlipspizza.com

Broder Cafe
귀여운 팬케이크 퍼프를 곁들인 스칸디나비안 식 아침식사
A 2503 SE Clinton
T 503-736-3333
W broderpdx.com

Bijou Cafe
해시브라운과 샌드위치가 맛있는 곳
A SW 3rd Ave
T 503-222-3187

Food Carts
푸드 카트는 포틀랜드 다이닝 씬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곳 사람들은 버거킹 햄버거나 서브웨이 샌드위치보다는 푸드 카트에서 도시락 사 먹는 걸 훨씬 좋아한다. 매일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 Alder Pod와 Fifth Avenue Pod의 두 군데 광장에서 푸드 카트들이 문을 여는데, 아시아, 동유럽, 인도, 멕시코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의 음식은 모두 다 있다. 도시락 당 5-7달러 내외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러니 맥도날드가 발을 못 붙일 수밖에.
Alder Pod : SW Alder Street의 9~10번가 사이
Fifth Avenue Pod : SW Fifth Avenue의 Oak 스트리트와 Stark 스트리트 사이
W foodcartsportland.com

COFFEE & CHOCOLATE
(맥주는 66)

Stumptown Coffee
커피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포틀랜드에서도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곳으로 알려졌다. 포틀랜드 커피 레볼루션의 시작점이라고들 한다.
A 4525 SE Division St
T 503-295-6144
W stumptowncoffee.com

Cacao
초콜릿 가루를 녹여 만든 핫초코가 아니라, 진짜 초콜릿 덩이를 녹여 만든 제대로 된 드링킹 초콜릿을 파는 구어메 초콜릿 숍. 스파이시와 시나몬, 오리지널을 맛볼 수 있는 테이스팅 메뉴 하나면 한동안 초콜릿 못 먹는다.
A 414 SW 13th Ave
T 503-241-0656
W cacaodrinkchocolate.com

LIVE / PERFORMANCE
공연

Arlene Schnitzer Concert Hall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공연장. 포틀랜드 심포니 및 여러 예술 단체의 주 공연장이며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외관은 포틀랜드의 대표 랜드마크다.
A 1037 SW Broadway
T 503-228-1353
W pcpa.com/events/asch.php

Jimmy Mak's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재즈 바.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재즈 공연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A 221 NW 10th Ave
T 503-295-6542
W jimmymaks.com

PARKS
공원

Public Parks Info
portlandparks.org

Portland Classical Chinese Garden
portlandchinesegarden.org

Washington Park
washingtonparkpdx.org

Portland Japanese Garden
japanesegarden.com

Marche

10 Below

»

TAKE THREE

Blaze a Taste

Gourmet, Wine and Beer in Oregon

깜짝 놀랄만한 사실: 오리건은 미식 천국이다

무식하게 양 많고 칼로리만 높은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 미국의 음식 문화가 이런 정크푸드 때문에 평가절하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랄 수 있겠지만, 오리건 사람들에게 이런 악명은 가슴을 치며 억울해 할 만한 오해다. 각종 매체의 미식 도시 순위의 톱을 장식하며 몇 년 새 미국을 대표하는 미식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포틀랜드와, 창의적인 요리사들이 마음껏 기를 펼 수 있게 하는 질 좋은 재료들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오리건의 토양과 바다는 요리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 불러도 아깝지 않다.

이곳의 미식 문화의 힘은 특히 식재료에 있다. 요리에 쓰이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육류와 해산물, 야채와 부재료는 오리건 주 내에서 생산된다. 훌륭한 음식에 곁들여야 할 와인과 맥주 역시 '메이드 인 오리건'이며, 각각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 와인의 명성과 본고장 독일 맥주의 맛을 위협하는 수준이다(이곳 사람들은 이미 능가했다고 주장하니, 어디 정말로 그런지 직접 가서 확인 해 보길). '진짜 맛있는 음식이란 제철 재료를 산지에서 조리해 먹는 것'이란 진리를 생각한다면 오리건에서의 한 끼 식사는 맛 없을 이유가 없다. 목구멍을 데구르르 넘어가는 피노 그리pinot gris의 달콤명랑한 맛과 800여 가지 하우스 맥주의 맛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을 여행하는 동안 만큼은, 굳이 지구 반대편의 한식 맛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

TAKE THREE Blaze a Taste

01

02

맥 주

01, 03 포틀랜드와 오리건에 있는 수많은 브루펍들 가운데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인 드슈츠 브루어리. 바 맞은 편에 있는 수십 개의 생맥주 꼭지들과 거대한 탱크가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이날은 마침, 새로 만든 맥주인 '쥬벨2010'을 처음 선보이던 날. 평일임에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02 아주 시골인 베이커 시티의 한적한 바에서도 맛볼 수 있는 크래프트 맥주. 04 역시 오리건 대표 브랜드 중의 하나인 로그Rogue, 셰익스피어와 데드 가이Dead Guy 등, 독특한 이름의 맥주와 병 디자인을 선보인다.

03

04

Welcome to Beervana, USA

오리건이라 쓰고 맥주라 읽는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오리건은 맥주 천국입니다. 독일에서 진정한 맥주 맛을 찾으리라 다짐하고 있었던 당신이라면 이번 기회에 맥주 순례 리스트에 오리건을 꼭 적어 두길. 독일을 능가하는 맥주의 고장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이곳밖에 없으니까. 경계 내에 32개의 브루어리가 있는 도시도 지구상에 포틀랜드 밖에 없다. 그래서 브루어리의 숫자와 인구당 브루어리 수, 고급 맥주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미국 톱 수준인 오리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꼽는다면 '그냥 맥주 주세요'다. 이 땅엔 그냥 맥주는 없다. 맥주 하면 으레 '셋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우리에게 이는 참 낯선 풍경이지만, 사실이 그렇다.

오리건의 식당이나 펍에서 맥주를 주문할 때 그 긴 리스트에 잠깐 당황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메뉴에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많고, 종업원들 역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추천을 해 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드슈츠Deschutes와 로그Rogue, 브리지포트Bridgeport, 맥메나민스McMenamins 등 규모가 큰 브루어리들은 도시 곳곳에 브루펍brewpub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계절별로 가장 신선하고 맛 좋은 맥주들을 골라 맛볼 수 있다. 이 황홀한 맥주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빠져보고 싶다면 오리건 주정길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oregonbeer.org를 꼭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관광안내센터의 'Brew-ha!' 가이드도 마찬가지. 아주 상세한 소개와 지도가 첨부된 이 가이드를 들고 주구장창 펍만 돌아다니는 진정한 마니아들을 현지에서 여럿 봤다.

01

Born to the Purple

레드 혹은 화이트? 둘 다 베스트!

현대 과학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좋은 와인은 아직까지 땅과 기후가 만들어낸다. 오리건이 와인 명산지로 떠오른 것은 그래서 우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 오리건 주의 중서부, 캐스케이드 산맥의 서쪽 사면을 따라 자리잡은 윌러맷 밸리Willamette Valley는 프랑스의 버건디Burgundy 지방과 위도 및 기후가 흡사하다. 길지만 크게 덥지 않은 여름과 바닷바람이 금세 기온을 떨어뜨리는 가을은 피노 누아, 피노 그리, 샤도네와 리즐링 품종이 맛있게 익어가기에 딱 맞다. 그래서 1980년대에 조금 늦게 출발한 오리건의 와이너리들은 금세 질과 양에서 캘리포니아를 넘보는 미국 최고 수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오리건에는 윌러맷 밸리를 중심으로 남부의 로그 밸리Rogue Valley 및 움쿠아 밸리Umpqua Valley, 그리고 컬럼비아 강 연안에 모두 300여 곳의 와이너리와 700여 곳의 포도밭이 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적당한 수준의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맛을 보고 오리건의 와인을 체험해 보고 싶다면 각 지역의 테이스팅 룸을 방문하거나 와인 투어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테이스팅 룸에서는 5(화이트)~15(레드)달러 정도를 내면 네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다. 어딜 가나 피노 누아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조금 더 달면서 상쾌한 피노 그리, 혹은 리즐링도 맛만 보고 그냥 일어서기 힘들 만한 매력이 있다(와이너리 지도 112).

02

03

01~04 오리건에는 가장 완벽한 재배 환경을 갖췄고 가장 수도 많은 윌러맷 밸리를 비롯해, 중부의 레인 카운티Lane County와 남부의 애플게이트Applegate, 로그Rogue, 움쿠아Umpqua, 일리노이Illinois 밸리 및 컬럼비아 강 주변까지, 각기 특색 있고 질 좋은 와인을 내놓는다. **05, 06** 스윗 치스Sweet Cheecks 와이너리의 테이스팅 룸에서 맛본 치즈와 미녀 매니저 로리 노먼Lorrie Normann

©punctum. Photo by 장수원
04

05

06

01

퍼시픽 노스웨스트 퀴진

05

06

07

01 레드 오크 양상추와 오이, 토마토, 발사믹 식초, 그리시니grissini 크래커와 페타 치즈를 곁들인 전채 요리(7달러, 윈체스터) **02, 03** 살짝 익힌 작은 새우와 아보카도, 야채를 곁들인 샐러드(11달러)와 시금치 퓨레를 곁들인 관자 요리(23달러, 이상 데이비스 스트릿 터번) **04** 윈체스터의 셰프 티모시가 디저트를 만들고 있다. **05** 애쉬랜드의 멋진 레스토랑 윈체스터의 내부 **06** 포틀랜드 시내 나인스 호텔 로비 레스토랑 **07** 샌디에이고 출신 오너셰프가 운영하는 뉴포트의 이름난 맛집, 퀌비스Quimby's 레스토랑

02

03

04

Hearty, Healthy Northwest

햄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식 이야깁니다.

퍼시픽 노스웨스트 퀴진Pacific Northwest Cuisine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뉴욕이나 LA에서 최고 수준의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혹은 일식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은 봤지만 최고 수준의 뉴욕식, 혹은 LA식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사실 그런 게 있지도 않다. 그러니 '제대로 된 미국식 요리 사 줄게' 하면 '햄버거 말하는 거야?' 라는 심드렁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오리건에서 맛보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퀴진은 미국 음식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뒤집는 좋은 기회다. 오리건과 그 북쪽의 워싱턴 주, 그리고 캐나다 BC주를 거쳐 알래스카까지를 커버하는 지역에서 발원한 이 '뼈대 있는' 요리는 신선하고 담백하며, 무엇보다 건강하다.

이 요리들은 트랜스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같은 미국적인(?) 단어와는 거리가 있다. 연어와 어패류, 소와 무스, 엘크, 사슴, 버섯과 베리, 감자 등 지역에서 갓 생산된 신선한 재료들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 음식이 좀처럼 없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아시아와 인디언의 요리가 접목돼 소스나 향신료가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다. 살짝 익힌 신선한 재료에 과하지 않게 가미한 소스와 '도전 정신'이 투철한 서부 요리사들의 손맛. 오리건에서 파인 다이닝fine dining을 표방하는 어느 레스토랑에서나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는 이들 요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지 직송'이요 '계절 별미'다. 요즘 이만한 요리, 참 찾기 쉽지 않다.

01

02

03

퓨전 푸드

04

01 워싱턴 파크 초입에 있는 오랜 역사의 햄버거집인 스카이라인 레스토랑Skyline Restaurant의 거대한 자이언트 버거(7.5~9.95달러) **02** 디저트를 따로 팔지 않는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젤라또 **03** 클램차우더(1인분 한 컵에 2.95달러)로 유명한 모스 레스토랑Mo's Restaurant **04, 05** 사진의 소스박스를 비롯해 실크Silk(베트남 음식), 포크 포크Pok Pok(타이)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포틀랜드와 오리건이다.

Mix & Match

다양한 식문화의 믹스 앤 매치

패션에만 믹스 앤 매치가 있는 게 아니다. 온갖 문화가 뒤섞여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아시아와 인디언 문화의 향기가 많이 스며 있는 오리건의 식탁 위에서 믹스 앤 매치는 일상이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퀴진의 다른 한편엔, 더욱 익숙하고 캐주얼한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접시 위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있다. 데리야키, 토마토와 크림, 블루 치즈, 타바스코, 그리고 살사. 초밥과 사시미 애피타이저와 생크림을 넣은 커리 덮밥 양트레와 고수 잎을 넣은 칵테일. 각각 옷을 맞춰 입은 듯한 다국적 음식들이 차례로 식탁 위에 올려지는 모습은 오뜨꾸뛰르 패션 쇼를 보는 것처럼 눈과 입이 즐겁다.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아우르는 식탁 위의 합종연횡은 지역을 벗어나 이념 간의 믹스 앤 매치로도 이어지고 있다. 비만의 주범으로 질시 받던 피자나 햄버거조차도 '그린'을 입고 나왔고, 친환경 어업으로 잡은 생선만 재료로 사용한다는 스시 레스토랑도 있다. 새침한 멋쟁이의 칵테일인 마가리타magarita를 500cc 맥주잔보다 더 큰 잔에 담아 '빅 풋 마가리타'를 선보이는 '싸나이' 바텐더도 있다. 그런 고집과 그런 집착이 매일 매일 오리건의 퓨전 음식 리스트를 길게 만든다. 아이 머리 크기만한 자이언트 버거, 피가 흥건한 사슴고기, 그리고 수입산이 아닌 '메이드 인 오리건'의 소주까지. 어떠한 조합을 머릿속에 떠올리든 오리건 어딘가에선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05

로컬 푸드

Oregonians' Got Talent

재능 만발, 오리건 로컬 푸드

남도의 한정식이나 제주도 보말국의 진짜 맛은 현지에서 숟가락을 뜰 때 완성되는 것처럼, 지방의 식탁 위에는 도시의 레스토랑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포틀랜드에서 한참 떨어진 오리건 지방 도시들의 식탁 위에도 로컬 푸드의 특별함은 활짝 꽃을 피운다. 뉴포트Newport 104나 플로렌스Florence 87 같은 태평양 연안의 항구 도시에선 굴과 던저네스 크랩Dungeness Crab과 연어가, 펜들턴Pendleton 88이나 베이커 시티Baker City 91 같은 내륙의 카우보이 도시에선 쇠고기와 엘크, 버팔로 고기 등이 펄펄 뛰어다닐 것만 같은 신선한 상태로 접시에 오른다.

한국의 가정식 백반집 같은 곳도 있다. 언제나 뜨끈한 국물과 손맛 넘치는 찬이 있는 우리 백반집의 '아메리칸 버전'을 구경해 보고 싶다면 베네딕트benedict를 주문해 볼 것.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국물 같은 건 없지만 해산물이나 햄을 곁들인 오믈렛과 토스트, 우유와 커피로 구성된 이 정통 미국식 아침은 대도시 호텔에서 흔히 먹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외에도 클램 차우더, 작은 새우(커다란 새우는 이쪽 바다에서 잘 잡히지 않는다)를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야채가 듬뿍 들어간 요리라면 무엇이든 입 안에 신선한 향기를 불어넣어 준다. 한 가지 더. 어느 레스토랑에서든 오리건의 특산물인 버섯 – 금값보다 비싸다는 송로 버섯이 아니어도 좋다 – 을 이용한 음식은 눈 감고 주문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01 포틀랜드 근교 던디Dundee에 있는 소문난 레스토랑, 던디 비스트로. 윌러멧 밸리의 와인과 훌륭한 식사(양트레 15~19달러)를 할 수 있으며, 수요일마다 무제한 바비큐 디너(1인당 15달러)를 제공한다. **02, 04, 06** 링컨시티의 와일드플라워 그릴Wildflower Grill에서 선보이는 가정식 아침식사인 베네딕트(9.95~13.95달러) **03** 건물 벽 색깔만으로도 어쩐지 싱싱한 느낌을 주는, 뉴포트 베이프론트의 피쉬 마켓 **05**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벤드 시내 제일의 트렌디 레스토랑으로 떠오른 레스토랑 '10 빌로우' 의 샌드위치(13달러). 두툼한 베이컨과 프렌치프라이가 일품이다.

Fiesta on the Table!. 식탁 위의 한 끼 식사를 축제로 만드는 오리건의 음식과 레스토랑들

Travel Information 여행 정보

BEER
맥주

Brewpub Info
주요 브루펍 정보

여러 군데의 브루펍을 갖고 있는 주요 브루어리들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브루펍의 정보 및 링크는 oregonbeer.org를 참고할 것.

Bridgeport
bridgeportbrew.com

Deschutes
deschutesbrewery.com

Lucky Labrador
luckylab.com

New Old Lumpoc
newoldlompoc.com

Rogue
rogue.com

Rock Bottom
rockbottom.com

WINE
와인

Web Source 인터넷 와인 정보
oregonwinecountry.org
oregonwine.org
oregonwinebrochure.org
willamettewines.com
columbiagorgewine.com

Tasting Room
와인 테이스팅 룸

Oregon Wines on Broadway
와인바 같기도, 와인숍 같기도, 그저 술 마시기 좋은 곳 같기도 한, 포틀랜드 중심가의 와인 테이스팅 룸
A 515 SW Broadway, Portland
T 503-228-0126
W oregonwinesonbroadway.com

Oregon Wine Tasting Room
여러 와이너리를 돌아다니면서 '내 와인'을 찾을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또 그만한 마니아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도 와인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장소. 윌러맷 밸리의 20여 개 로컬 와인들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다.
A 19690 Hwy 18, McMinnville
T 503-843-3787

Wineries
와이너리 (지도 p.12)

King Estate
오리건 최대 규모의 와이너리. 훌륭한 음식을 선보이는 대규모 레스토랑 및 테이스팅 룸도 갖추고 있다.
A 80854 Territorial Rd, Eugene
T 541-942-9874
W kingestate.com

Sweet Chicks
규모가 작지만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다. 작은 규모에 맞게 테이스팅 룸의 분위기도 훨씬 편안하면서 밝다.
A 27007 Briggs Hill Road, Eugene
T 541-349-9463
W sweetcheekswinery.com

The McMenamins 맥메나민 형제의 맥주 왕국

맥주의 고장답게 오리건에는 맥주에 미친 사람들이 꽤 많다. 맥메나민 형제The Mcmenamins는 그 중에서도 제일 미친(?) 축에 드는 맥주 광이다. 어찌나 맥주에 빠졌는지, 그들은 오리건 곳곳에 있는 폐교나 공연장 등을 사들여 호텔, 극장, 펍, 공연장이 한 곳에 집중된 맥주 학교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펍도 따로 만들어서 이 형제는 이제 오리건을 대표하는 맥주 왕국의 전제군주가 되었다. 맥주 팬이라면 놓치지 말길. 홈페이지(mcmenamins.com)에서 이 왕국에 소속된 모든 학교와 펍과 레스토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inery Tours
와이너리 투어

Oregon Wine Tours
T 503-681-9463
W orwinetours.com

Grape Escape Tours
T 503-283-3380
W grapeescapetours.com

RESTAURANT
레스토랑

Mo's Restaurant
뉴포트, 플로렌스 등 주요 해안 도시에 분점을 둔 클램차우더 전문 레스토랑
A,T 지역별 분점 아래 홈페이지 참조
W moschowder.com

Saucebox
아시아-퓨전 음식을 선보이는 스타일리시한 레스토랑 겸 바. 부처 조각 등의 배치가 어설퍼도 분위기와 맛이 이를 보충하고도 남는다. 초밥 메뉴도 수준이 빼어나다.
A 214 SW Broadway, Portland
T 503-241-3393

Burgerville
성장호르몬을 쓰지 않고 오직 풀만 먹인 쇠고기와 로컬 야채를 사용한 친환경 햄버거
W burgerville.com

The Winchester
남부 오리건 와인과 농장 직송 재료들로 만든 클래식 로컬 퀴진을 선보이는 레스토랑 겸 작고 예쁜 B&B. 사슴고기와 염소치즈, 관자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벨기에 출신 셰프 티모시 넬슨이 만든다. 그는 고르곤졸라gorgonzola 대신 '오리곤졸라oregonzola' 같은 위트 있는 배리에이션을 할 줄도 아는 센스쟁이다.
A 35 S. 2nd Street, Ashland **T** 541-488-1113 **W** winchesterinn.com

Bamboo Sushi
녹색 레스토랑 연합의 인증을 받은 미국 내 첫 번째 일식 레스토랑
W bamboosushipdx.com

38 Central
요즘 트렌드대로, 고풍스러운 옛 창고 건물이 스타일리시한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했다. 시원한 높이의 천장 아래서 즐기는 적당한 가격의 샌드위치, 파스타와 샐러드
A 38 N Central, Medford
T 541-776-0038
W 38central.net

Wildflower Grill
고즈넉한 야외에 있는 보통 미국 집처럼 생긴 가정식 레스토랑. 특히 휴일 아침이면 베네딕트 메뉴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사방 1백 마일 이내 비할 데가 없는' 맛집
A 4250 NE Highway 101, Lincoln City
T 541-994-9663

Dundee Bistro
지역의 와인 명가 폰지 패밀리Ponzi Family가 와인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파스타와 피자 및 사이드 디쉬를 내놓기 위해 만든 캐주얼 레스토랑
A 100-A SW 7th St., Dundee
T 503-554-1650
W dundeebistro.com

Quimby's
샌디에이고 출신의 오너 셰프 마이크 다우닝이 선보이는 다양한 음식
A 740 West Olive St., Newport
T 541-265-9919
W quimbysrestaurant.com

10 Below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선한 재료를 쓴 다양한 종류의 식단을 선보이는 힙 한 레스토랑
A 10 NW Minnesota Avenue, Bend
T 877-440-8436
W oxfordhotelbend.com/the-kitchen.htm

Marche
유진의 명소, 피프스 스트리트 퍼블릭 마켓Fifth Street Public Market 마켓 안에 있는 레스토랑. 편안하고 탁 트인 분위기에서 지역 생산 재료를 이용한 간단한 식사 및 노스웨스트 퀴진을 맛볼 수 있다.
A 296 Fifth Avenue, Eugene
T 541-342-3612
W marcherestaurant.com

이름없는 건물 벽에서도 느껴지는 '아트'

쇼핑 천국, 포틀랜드 시내의 쇼윈도

»

TAKE F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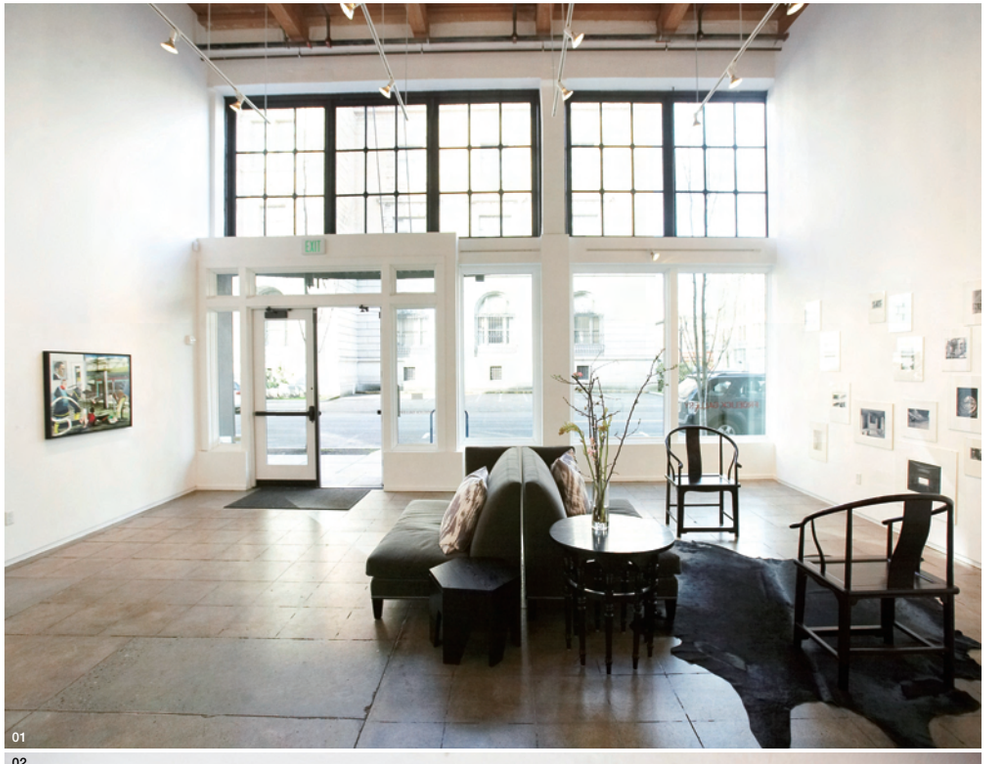
Art + Shopping

Tax-Free & Speech-Free

쇼핑도 예술도, 당신 맘대로

골라 보는 재미는 오리건의 쇼핑 씬에도 있다. 도시는 도시 대로, 작은 마을은 그 곳 대로, 시장엔 살 것 볼 것 많고 백화점과 대형 쇼핑 센터에선 돌아만 다녀도 흥이 난다. 소비세가 없어 주 전체가 면세점이나 마찬가지여서 번거로운 세금 환급에 신경 쓸 필요도 없거니와 체감 물가도 싼 편이다. 포틀랜드 도심에서는 메이시, 노드스트롬, 삭스 등 주요 백화점이 있는 파이오니어광장과 파이오니어 플레이스Pioneer Place가 고급 쇼핑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북서쪽의 놉 힐Nob Hill에 부티크 숍이, 남동쪽의 호손Hawthorne 가에 히피한 매력의 상점이 많이 있다. 면세 주답게 우드번Woodburn을 비롯한 지방 도시 곳곳엔 대형 아울렛 매장들이 있고 어느 도시에서든 열리는 토요 마켓Saturday Market이나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은 꼭 뭘 살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들러볼 만하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장 강하게 보장되어서인지, 이곳의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여유롭고 따뜻하다. 누구든 예술이란 걸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곳 사람들 사이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포틀랜드의 펄 디스트릭트Pearl District나 알버타 스트리트Alberta Street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 천 명 정도 시골 마을에서도 길에서 갤러리나 스튜디오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 수준이 어떤지는 무 자르듯 말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원래 예술이란 게 종種의 진화처럼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건 당신 몫이다.


01

02

03

04

05

갤러리

The Art-holic State

모든 타입의 아트홀릭들을 위해

누군가 예술은 밥상머리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 요즘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갤러리를 찾는 것은 꼭 무슨 대단한 예술적 사명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보다는 현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엿보고 싶어서거나(분석주의자) 뭔가 예쁜 것을 눈으로 훑고 싶어서거나(탐미주의자), 아니면 예쁘고 특별한 기념품을 사고 싶어서다(과시주의자). 포틀랜드와 오리건은 이들 모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갤러리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다.

분석주의자라면 포틀랜드에서 매 달 첫 번째 목요일(올드 타운 및 펄 디스트릭트)에 열리는 갤러리 워크와 마지막 목요일(앨버타 스트리트)에 열리는 아트 워크에서 흥겨운 파티와도 같은 산책에 취할 수 있다. 탐미주의자라면 포틀랜드 아트 뮤지엄 등 주요 대형 전시관에서 리히텐슈타인을 비롯한 명망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찬찬히 훑어볼 수 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갤러리 간판이 보일 때마다 들어가서 쓱 훑어보고 나오면 된다. 지방 소도시의 갤러리일수록 특이한 작품 세계 – 예컨대 의뢰인의 애마나 애견의 털을 태워 도자기에 문양으로 넣어주는 도예가라든지, 말이나 소가 오랫동안 핥아서 기하학적으로 구멍이 난 소금 블록 전시회라든지 – 가 많다. 게다가 어딜 들어가든 눈치는커녕 미소만 한아름 안고 나올 게 분명하다.

06

01 포틀랜드의 여느 소규모 갤러리들처럼, 프롤릭 갤러리Froelick Gallery 또한 허름한 옛 건물 속에 진주알 같은 전시를 선보인다. **02, 06** 다양한 디자인 소품과 디자인 서적, 회화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종합 디자인 숍인 컴파운드Compound **03, 04, 07~09** 링컨 시티에 있는 재니퍼 시어스 글래스 아트 스튜디오The Jannifer Sears Glass Art Studio에서 유리공예가 재니퍼와 그녀의 동료가 유리 공예를 보여주고 있다. 초보자도 직접 자신만의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75달러). **05** 프롤릭 갤러리의 오너 찰스 프롤릭 씨

07

08

09

Museums about Everything

박물관 옥석 고르기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압도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박물관의 수다. 25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에서 오는 일종의 컴플렉스인진 몰라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박물관을 만든다. 오리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예술 관련 박물관이야 당연한 것이겠고, 카우보이, 소방차, 길(오리건 트레일), 직업 여성, 중국 이주 노동자, 나무, 사막, 사금 채취선 등등, 도시마다 마을마다 박물관 없는 곳이 없다. 5천 년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그게 처음엔 시시했다가 점점 부러워졌고, 결국 나중에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어쨌든 200년이 다섯 번 모이면 천 년이 되는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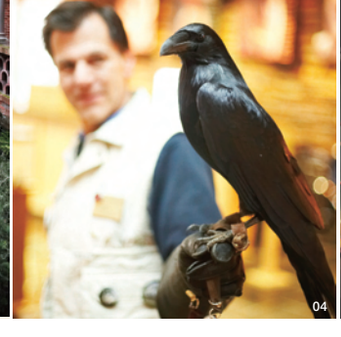
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런 저런 박물관들 중 포틀랜드를 제외한 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맥민빌McMinnville에 있는 에버그린 항공우주박물관이다. 워싱턴DC에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지만, 이곳의 전시물과 시설은 그 먼 동부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 오리건 제 2의 도시 유진Eugene의 오리건 주립대 내에 있는 조던슈니처Jordan Schnitzer 미술관도 가볼 만한 곳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상설 전시 목록도 목록이지만, 그림 같은 회랑과 정원이 있는 안뜰에 잠시 앉아 대학가의 공기에 빠져 있노라면 어쩐지 숨만 쉬어도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01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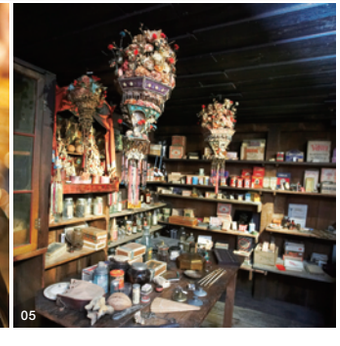
01 동부의 작은 도시 라그랜La Grande에 있는 귀여운 소방차 박물관 **02, 03** 중부의 학구도시, 유진Eugene의 오리건 주립대 내 조던 슈니처 미술관은 멋진 정원과 다양한 아시아 상설 전시를 선보인다. **04** 벤드Bend에 있는 하이 데저트 뮤지엄High Desert Museum. 사막의 다양한 문화와 동식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05** 옛날 중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보존해 놓은 캄와청Kam Wah Chung 뮤지엄. 존데이John Day에 있다. **06**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래지게 만들 항공우주박물관

02

03



04



05

06

01

05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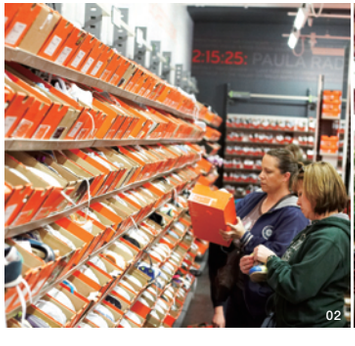
01~04, 06, 07 중부 해안의 링컨 시티에 있는 탠저Tanger 아울렛 몰과 포틀랜드 근교 우드번 컴퍼니 스토어의 다양한 숍들. 생활 소품에서부터 의류 및 화장품까지, 대부분의 상품들을 절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05 포틀랜드 다운타운의 파이오니어 플레이스에 있는 백화점 삭스 피프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파이오니어 플레이스와 연결된 지하에는 갭과 애플숍 등 대형 매장들과 푸드 코트가 있다.

Shoppers' Tax Haven

'지름신'은 내려도 세금은 붙지 않는다

쇼퍼홀릭에게 '면세'라는 말 만큼 반가운 유혹이 또 있을까. 다음 달 카드 지불일에 눈물을 흘리게 할 악마의 유혹일지라도, 면세란 말은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오리건에 소비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어쩐지 뭘 사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포틀랜드 시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값비싼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은 파이오니어 광장 근처다. 대형 고급 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파이오니어 플레이스는 넉넉한 공간과 편안하고 아름다운 내부 구조 덕에 도심 산책 코스로도 나쁘지 않다. 아이폰 유저라면 지하에 있는 애플숍도 놓치지 말 것. 국내에선 살 수 없는 예쁜 선물용 기프트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의 나라인 만큼 오리건에서의 쇼핑의 노른자위는 역시 도시 외곽 지역의 광활한 부지에 자리잡은 아울렛이다. 포틀랜드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우드번Woodburn 컴퍼니 스토어는 미 서부에서 가장 큰 면세 아울렛이다. 오리건에서 태어난 나이키와 컬럼비아를 비롯해 갭, 컨버스 같은 저가 상품에서부터 게스, 캘빈클라인과 코치Coach까지, 85개가 넘는 브랜드의 상품들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다. 프라다나 루이뷔통 같은 매스티지 라인이 없어 '사모님'들에게는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평상복이나 간단한 액세서리를 위한 쇼핑이라면 이만한 데가 또 없다.



02

03

04

06

07

TAKE FOUR Art + Shopping

01

02

03

로컬 마켓

Green, Organic Paradise

관광과 체험으로서의 오가닉에 열광한다면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오리건의 으뜸 품목은 단연코 싱싱한 식재료와 이를 가공한 상품들이다. 배, 사과, 포도 같은 과일에서부터 치즈, 초콜릿, 와인까지. 건강한 땅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들을 귀국 비행기에 마음껏 싣지 못하는 게 늘 한스럽다(물론 몇몇 포장 제품은 가능하다). 대안은 현지에 있는 동안 많이 사먹고 많이 구경하는 것. 면세점에서 파는 꼭꼭 포장된 것들보다 아직도 살아 숨쉬는, 그래서 맛이 아닌 생명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식재료들을 마음껏 만져보고 나서야 '보약 같은 밥상'에 대한 갈망이 풀린다.

늦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포틀랜드를 비롯한 오리건 곳곳에서는 파머스 마켓이 열린다. 포틀랜드의 사우스 파크South Park 블럭에서 열리는 포틀랜드 파머스 마켓이 규모가 가장 크다. 유럽이나 북미의 어지간한 도시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는 시장이지만, '유기농'과 '그린'이 강조될수록 이런 장소는 관광과 학습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요즘엔 지역 주민들 이상으로 아이들 손 잡고 온 관광객들이 많고, 이는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재료를 내놓으려는 농부들의 오기로 이어진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코를 간지럽히는 과일과 버섯 향, 혀를 부드럽게 타넘는 달콤한 초콜릿 트러플, 그리고 톡 쏘는 상큼함이 코 끝에 남는 블루 치즈를 최고로 신선한 상태에서 맛보는 일은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멋진 체험 상품(그것도 공짜!)이 되었다.

01, 02, 05 미국 여러 지역 쇼핑가에 분점을 갖고 있는 대형 마트인 해리앤데이빗Harry&David, 해당 지역에서 갓 올라온 신선한 식료품과 저렴한 로컬 와인 셀렉션을 갖추고 있어 지역 특산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다. **03, 06** 유진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가인 피프스 스트리트 퍼블릭 마켓Fifth Street Public Market. 초콜릿, 생활 용품, 꽃, 의류, 서적과 아프리카 소품,그리고 빼어난 수준의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다. **04** 파머스 마켓은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사람 구경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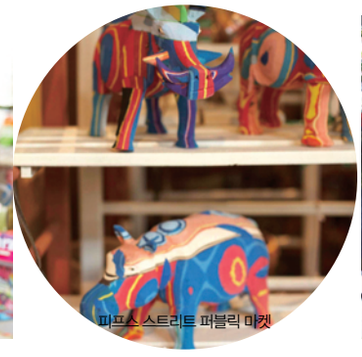
05

06

컴파운드

호손 스트리트

컴파운드의 오너 맷 와그너Matt Wagner


파프스 스트리트 퍼블릭 마켓

파머스 마켓

디 엣지 갤러리 앤 커피 라운지

Travel Information 여행 정보

SHOPPING & ART DISTRICT
쇼핑 및 문화의 거리

Pearl District
포틀랜드의 패션 및 예술의 중심지. 갤러리와 스튜디오, 부티크 숍에서부터 세계 최대의 서점(Powell's City of Books)까지 없는 게 없다.
W explorethepearl.com
firstthursday.org

Alberta Art District
아시아와 라틴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예술 구역
W artonalberta.org

Downtown Portland
노드스트롬과 메이시, 그리고 삭스 백화점 등 대부분의 고급 쇼핑 센터가 파이오니어 광장을 중심으로 두 블럭 안에 모여 있다.
W downtownportland.org

Northwest/Nob Hill
NW 21번가와 23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디자이너 숍과 부티크 거리
W nobhillbiz.com

Hawthorne
자유분방함과 히피스러움으로 가득한 젊음의 거리
W thinkhawthorne.com

Lloyd Center
200여 개가 넘는 상점이 입주한 오리건 최대 규모의 쇼핑 센터
A 2201 Lloyd Center, Portland
T 503-282-2511
W lloydcentermall.com

Woodburn Company Stores
미 서부에서 가장 큰 면세 아울렛 쇼핑몰. 포틀랜드 도심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에 있다.
A 1001 Arney Rd., Ste. 508, Woodburn
T 503-981-1900
W shop-woodburn.com

Compound
갤러리인지 디자인 숍인지 헷갈리는, 어쨌든 특이하고 예쁜 것 참 많은 갤러리숍.
A 107 NW 5th, Portland
T 503-796-2733
W compoundgallery.com

Fifth Street Public Market
오리건 최고 수준의 카페와 레스토랑, 온갖 종류의 선물 및 생활 용품이 있는 그림 같은 상설 시장
A 296 5th Avenue, Eugene
T 541-484-0383
W 5stmarket.com

Made in Oregon
주위 사람들에게 줄 해외 여행 선물을 샀는데 그게 중국산인 경우만큼 민망한 때도 없다(점점 더 그런 물건을 살 확률은 높아져만 간다). '메이드 인 오리건'이 '메이드 인 재팬 혹은 저머니 혹은 프랑스' 만큼 멋진 브랜드는 아니라 해도, 치즈나 와인, 초콜릿, 시럽과 담요 등에 관한 한 오리건이란 상표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오리건 곳곳에는 이런 오리건 산 제품들만 파는 가게가 있으니 선물을 고민할 때 꼭 한번 들러보자. 홈페이지에서는 생일, 기념일, 공휴일 등 때에 맞춘 선물까지 추천해 준다(선물 사기 차암~ 쉽다!).
T 866-257-0938 **W** madeinoregon.com

LOCAL MARKET
비 상설 시장

Farmers Market
포틀랜드와 각 지역의 살아 숨쉬는 식료품과 사람들
W portlandfarmersmarket.org; oregonfarmersmarkets.org

Portland Saturday Market
손수 만든 하나뿐인 공예품, 특이한 옷과 값 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인간미 넘치는 장터
A SW Ankeny & Natio Parkway, Portland
T 503-22-6072
W portlandsaturdaymarket.com

GALLERY & MUSEUM
갤러리 및 박물관

WEB SOURCE

Portland Art Map
W portlandartfocus.net

Eastside Portland Visual Arts Guide
W firstfridayguide.com

Portland Art Museum
최근 확장 공사를 마쳐 더욱 다양한 상설 전시와 조각 정원을 갖추었다.
A 1219 SW Park Ave
W portlandartmuseum.org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A 1430 Johnson Lane, Eugene
T 541-346-3027
W jsma.uoregon.edu

Museum of Contemporary Craft
A 724 NW Davis St., Portland
T 503-223-2654
W museumofcontempo-rarycraft.org

Froelick Gallery
창의성 넘치는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드소토DeSoto빌딩에 위치한 사진 및 회화 갤러리
A 714 NW Davis Street, Portland
T 503-222-1142
W froelickgallery.com

Pittock Mansion
포틀랜드의 개척자이자 거부였던 피톡 부부가 살았던 멋진 저택. 저택 안과 정원에서 보이는 풍경이 환상적이다.
A 3229 NW Pittock Drive
W pittockmansion.com

The Jannifer Sears Glass Art Studio
유리 공예가 재니퍼와 함께 직접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리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75달러 선) 갤러리 겸 스튜디오
A 4821 SW Highway 101, Lincoln City
T 541-996-2569
W jannifersearsglassart.com

The Edge Gallery and the Coffee Lounge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 공간 겸 카페
A 10901 Island Avenue, Island City

High Desert Museum
A 59800 South, Highway 97, Bend
T 541-382-4754
W highdesertmuseum.org

Evergreen Aviation & Space Museum
역사상 최대의 항공기 '플라잉 구스Flying Goose'와 시대를 망라하는 실물 비행기가 모두 전시돼 있는, 아이들이 껌뻑 죽을 만한 항공 우주 박물관
A 500 NE Captain Michael King Smith Way, McMinnville
T 503-434-4180
W evergreenmuseum.org

시스터즈Sisters의 배철러 산Mt. Bachelor

TAKE FIVE

Wild & Winded

Local Excitement in Oregon

여행이 '구석구석' 이어야만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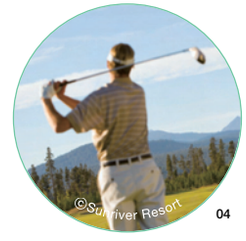
산맥과 바다와 바람이 오리건에 30분마다 몰라보게 변하는 풍경을 선물했듯, 날씨와 지형과 계절은 동네마다 몰라보게 다양한 분위기와 옥외 활동을 주었다. 같은 계절, 같은 시간에도 한 쪽에선 바싹 마른 땅에 카우보이가 소를 부리고 다른 쪽에선 온 동네 사람들이 비 내리는 극장에 모여 셰익스피어 연극에 미친다. 스키와 서핑, 골프와 하이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다양성은 한 도시, 한 경향으로 응축될 수 없다. 그래서 포틀랜드는 아주 쾌적하고 건강하고 세련된 오리건의 넘버 원 도시임에도 이 땅의 모든 걸 대표하진 못한다. 오리건의 지방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포틀랜드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두 시간만 가도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의 문화와 여가 생활이 펼쳐진다. 겉모습은 터프해도 마음은 여린 카우보이들이 사는 동부 오리건엔 승마, 캠핑, 레프팅 마니아들이 모여든다. 서부의 태평양 연안엔 모험가들이 사막 위를 질주하고 바닷가 골프 코스를 헤집는 한편, 남부엔 변화무쌍한 크레이터 레이크를 닮은, 감수성 예민한 셰익스피어 팬들이 낚시를 벗삼아 산다. 이렇게 할 것 볼 것이 많은 곳일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마 당신은 절대 포틀랜드에서만 머무르고 싶진 않을 것이다.

01

02

03



04

01~05 선리버 리조트Sunriver Resort는 그냥 리조트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에 가까운 대형 종합 리조트다. 이 리조트뿐만 아니라 일년에 거의 열 달 이상 쾌적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기후 조건 덕에 오리건은 미국 서부 최고의 골프 휴양지로 인정받고 있다. 바닷가의 모래 사막, 눈 덮인 산,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침엽수림 등 다양한 랜드스케이프를 가진 것도 큰 장점이다.

05

골프

In a “Green” State of Mind

일 년 내내 부는 녹색 바람

골프 마니아들에게 미국의 골프장에 대해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한다. 동부는 캐롤라이나, 남부는 플로리다, 서부는 오리건(골프다이제스트). 동부와 남부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오리건의 골프 환경이 서부 최고 수준이라는 데엔 이의를 달기 어렵다. 습하지 않은 긴 여름과 선선한 가을은 포도밭의 포도뿐만 아니라 그린 위의 골퍼들에게도 축복이다.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이 많은 겨울에도 캐스케이드 산맥 동쪽 사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외 지방에서조차 이곳에서의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와 달라 부슬부슬 흩뿌리는 정도라서 라운딩에 문제가 없다.

200여 개에 달하는 퍼블릭 골프 코스 중에 규모나 명성 면에서 가장 빼어난 코스는 주로 중남부 지역에 있다. 언제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세 개의 골프 코스를 갖춘 밴돈 듄스 골프 리조트Bandon Dunes Golf Resort는 남서부 태평양 연안에 있고, 중부의 중심 도시 벤드Bend 주변에는 선리버 리조트Sunriver Resort를 비롯한 25개의 골프 코스가 모여 있다. 물론 포틀랜드와 가까운 곳에도 더 리저브The Reserve와 펌킨 릿지Pumpkin Ridge 같은 출중한 골프 코스가 많이 있어 스케줄에 따라 여행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그린을 고를 수 있다.

Sports Wonderland

사계절 스포츠 원더랜드

남쪽의 선리버Sunriver와 북서쪽의 시스터즈Sisters를 끼고 있는 인구 8만의 도시 벤드는 오리건의 스포츠 수도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답답한 도시 – 이 땅에 진짜 '답답한' 도시가 있긴 한지 모르겠지만 – 를 떠나 자연과 여가 활동을 벗삼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엘도라도 같은 곳이라고 오리건의 도시인들은 입을 모은다. 스포츠를 위한 주변 환경은 이 지역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배철러Bachelor 산과 쓰리 시스터즈Three Sisters 산에선 초여름까지 스키를 탈 수 있고, 동시에 드슈츠Deschutes 강 주변에선 카누와 플라잉 낚시와 마운틴 바이크 등 야외에서 가능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 맑은 날이 연중 250일인 캐스케이드 산 동쪽 사면의 25개 골프 코스는 겨울철에도 사람들로 붐빈다. 이 모든 게 반경 1시간 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새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까지, 벤드는 오리건에 세컨 하우스second house 붐을 일으켰다(값싼 매물이 많은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라는 귓속말도 들린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들 하지만 그건 이 곳 사람들의 몫일 뿐, 여행자에겐 딴 나라 얘기다. 오히려 더 많은 프로모션과 여유로운 여행의 기회기도 하다. 벤드 시내의 쇼핑 중심가인 올드밀 디스트릭트Old Mill District에서는 세일과 이벤트가 난무한다. 그 와중에도 시내엔 부티크 호텔이 생겨나고, 오리건의 첫 번째 브루어리인 드슈츠 브루어리펍에선 미러 폰드Mirror Pond와 옵시디언 스타우트Obsidian Stout를 들이키는 흥겨운 사람들로 가득하다. 무슨 일이 있든 긍정의 기운으로 충만한 흥에 겨운 도시가 바로 벤드다.

03

레저 중심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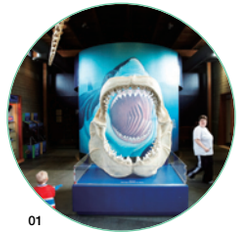
01

02

04

05

01 해질녘 중부 오리건의 레포츠 중심지인 벤드로 가는 길가에서. 곰을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곳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야생 동물을 만나는 건 낯선 일이 아니다. **02~05** 스키, 스노보드, 하이킹, 래프팅, 캠핑, 골프 등 사시사철 때에 따라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의 종류는 무한하다. 또한 저녁이면 벤드의 올드밀 디스트릭트로 모여들어 맥주잔을 마주드는 게 이곳 레포츠 마니아들의 일과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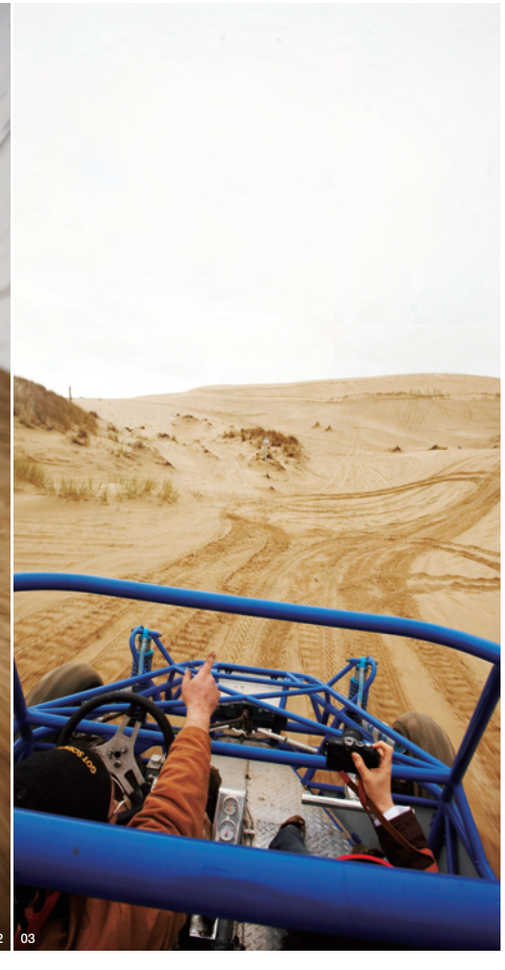
01, 07 뉴포트에 있는 오리건 코스트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 속을 지나는 터널과 그 속의 바다 생물들은 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눈길을 붙든다. **02, 03** 여기가 대체 어디? 오리건 듄스 내셔널 레크리에이션 에이리어Oregon Dunes National Recreation Area에서는 누구나 버기카, ATV, 4륜구동과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을 질주할 수 있다. 자신의 차를 직접 몰 수도 있는데, 모래 위에서 모든 차는 잘 보이는 곳에 깃발을 달아야 한다(경찰관도 모래 위에서 단속을 한다). **04~06** 플로렌스 근처의 헤세타 헤드 등대 내부와 바닷가의 풍경들

04

05

06

02



03

Sand Dune Waves

난 데 없는 사막. 모래 위에서 파도 타기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의 SF 고전 〈듄Dune〉을 기억하는가? 끝없는 모래 행성에서 펼쳐지는 서사를 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SF 소설의 아이디어가 오리건 서부의 작은 항구도시 플로렌스Florence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마 사하라나 모로코의 어디쯤?' 이라고 상상했던 적은 있었지만 뜬금없는 오리건일줄은, 미처 몰랐다. 이 난데없는 사막은 정말 거짓말처럼 시작된다. 거리엔 아름다운 50년대 포드Ford가 달리고 구석구석 클램 차우더 향이 은은한 이 작은 항구에서 10여 분 차를 달렸을 뿐인데 길이 80킬로미터, 너비 5킬로미터의 광활한 사막이 나올 줄이야.

태평양의 경계에서부터 시작되는 파도 같은 모래 언덕 위에선 ATV와 오토바이, 사륜구동과 버기buggy들이 마치 서퍼처럼 모래를 탄다. 굉음을 내는 타이어에서 튄 모래가 옷깃과 입 속으로 들어가고 때론 절벽처럼 가파른 언덕에서 오토바이가 굴러 내린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모래가 자신들을 사막의 터프가이로 만든 양, 절대 스로틀을 내리지 않는다. 사막이 북쪽으로 50킬로미터만 더 뻗었으면 그들은 링컨 시티를 거쳐 뉴포트(04)까지 내달릴 것만 같다. 링컨 시티의 아울렛과 뉴포트의 북적이는 항구가, 하마터면 버석거리는 모래투성이가 될 뻔 했단 얘기다.

07

01

02

03

05

06

04

In a Cowboy Mood

카우보이처럼 말하기

"화장실은 그냥 가는 거야. 뭘 양해를 구하고 그래!" 펜들턴Pendleton의 레인보우 카페에서 카우보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Excuse me"하고 일어설 때 그들에게 들은 말이다. 카우보이 식 터프함은 늘 이런 식이다. 서슴없이 직설적인 농을 걸고 세상 모든 일이 별 것 아닌 듯 심드렁하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대상은 오로지 자연과 바람뿐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사실은 경상도 남자처럼 여리다는 걸 알 수 있다. 알록달록하게 치장한 거대한 픽업 트럭이나 패션쇼에서 갓 튀어나온 것 같은 모피코트를 두른 카우보이 할아버지에게서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컬러풀한 남성성Colorful Masculinity. 카우보이의 도시 펜들턴의 터프가이들 틈에선 그런 게 보인다.

어찌됐건 오리건의 동부는 남성미 넘치는 카우보이들이 지배한다. 펜들턴과 라그랜La Grand, 베이커 시티Baker City와 존 데이John Day 등, 이름도 제각각이고 어딘가 남성적인 이들 도시 주변에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카우보이들과 들판 위의 수많은 소들이 항상 눈에 띈다. 두께마저 터프한 스테이크와 어두컴컴한 지하 도시,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부츠와 양철 천장의 문양, 그리고 시간 속에 묻힌 '와일드 웨스트' 의 흑백 사진 역시, 당신이 카우보이의 땅에 있음을 수시로 상기시켜 준다.

04

07

01~08 카우보이의 도시, 펜들턴. 쥬크박스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에선 카우보이들이 모자를 쓴 채 (맥주가 아닌!) 위스키를 마시고, 대형 픽업 트럭과 카우보이 장식들이 거리를 메운다. 기다란 다리에 스키니 진과 부츠를 신고, (혹시 직접 잡은?) 푹신한 모피 코트를 두른 '여성스런' 카우보이 할아버지가 특히 눈에 띄었다. 패션과 색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카우보이 도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01

Far, but not Away

외진 만큼 특별한 동부의 하루

존 데이 화석층 천연 기념물 지역29을 구경하고 난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경이로운 자연의 건축물들은 포틀랜드에서 차로 꼬박 네 시간을 달려가 구경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정작 '그 다음'에 대한 고민 없이는 선뜻 길을 나서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존 데이를 비롯해 이보다 더 동쪽의 베이커 시티와 라그랜 등은 오리건에서도 가장 외진 곳. 그러나 인구가 만 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이들 도시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황량한 사막과 끝없는 평원과 눈 덮인 산이 번갈아 나타나는 차창 밖 풍경도 풍경이거니와, 개척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리와 놀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오리건의 다른 지역에서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시 규모에 비해 널찍한 도로 양쪽으로 성냥갑 같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마치 서부의 보안관이 저벅저벅 걸어 나올 것만 같은 베이커 시티와 북쪽의 라그랜은 동부 오리건 관광의 중심 축이다. 북미 최고의 래프팅 장소 중 하나인 헬스 캐년Hells Canyon(겨울철에는 접근 불가)과 아름다운 그랜드 론드Grande Ronde 강, 그리고 수많은 낚시 및 캠핑 여행의 시작점이 이 두 도시다. 그 사이, 184의 노스 파우더North Powder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도로 위에는 엘크혼Elkhorn 야생동물 구역도 있다. 동부 오리건의 다른 지역이 겨울철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비해 이곳에선 오히려 겨울철에 야생 엘크 무리들을 바로 앞에서 구경할 기회가 생긴다.

라그랜, 베이커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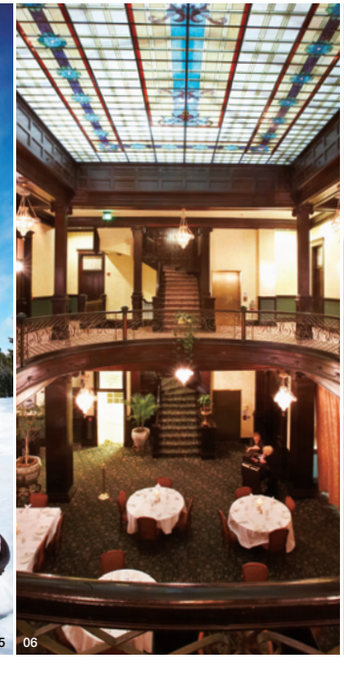
01 베이커 시티의 오리건 트레일 인터프리티브 센터Oregon Trail Interpretive Center(blm.gov/or/oregontrail)에서 바라본 대평원의 저편. 갈색 바다 위를 지나는 듯한 길을 따라 말 탄 보안관들이 저벅저벅 걸어 올 것만 같다. **02, 05** 베이커시티에서 존데이 가는 길의 스텀터 지역 박물관Stumpter Municipal Museum과 강바닥에서 금을 캐던 드레지dredge. **03, 07** 엘크혼 야생동물 구역에서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야생 엘크 투어를 할 수 있다. **04, 06** 베이커 시티 시내의 서점과 가이저 그랜드 호텔 내부

02

03

04

05



06

07

01

02

03

04

05

01 오리건 동부 도시들의 일상. 터프한 표정과 자세의 카우보이들이지만 눈을 마주치면 언제나 밝게 인사를 건넨다. 02, 05 배고픈 야생 엘크들에게 밥 주러 가자! 03샌드 듄 지역 내를 움직이는 모든 탈것들은 저렇게 눈에 띄는 깃발을 달아야 한다. 안 달면 '딱지' 떼인다. 04 카우보이라면 스테이크도 두툼하게. 헤인즈의 명물 스테이크 레스토랑인 헤인즈 스테이크하우스

추천 일정

Itinerary Recommendation

추천 여행 일정 – 로컬 오리건 투어

Cowboy Route
서부 개척시대의 모습과 카우보이 문화 엿보기

포틀랜드(1박) – 컬럼비아 리버 고지 – 펜들턴(1박) – 라그랜 – 엘크혼 야생동물 구역 – 베이커 시티(1박) – 존 데이 20 – 미첼 – 프라인빌 – 벤드(1박) – 시스터스 – 유진(1박) – 포틀랜드(1박)

Golf Madness
골프 마니아를 위한 중부 및 해안 골프장 순례

1. 포틀랜드(Pumpkin Ridge / The Reserve Vineyards) – 후드 리버(Indian Creek) – 시스터스(Aspen Lakes) – 선리버(Sunriver)
2. 포틀랜드 – 뉴포트(Salishan) – 플로렌스(Sandpines) – 밴돈(Bandon Du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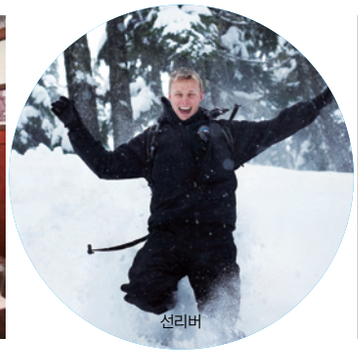
Activists' Trail
스포츠 및 야외 활동을 위한 일정

포틀랜드 – 후드 리버Hood River(낚시, 래프팅, 카이트 서핑) – 후드 산(스키, 하이킹) 35 – 벤드(클라이밍, 래프팅, 카누, 스키, 골프) – 포틀랜드

Southern Surprise
문화와 와인에 중점을 둔 남부 오리건 일정

포틀랜드(1박) – 던디, 맥민빌, 뉴버그(윌러매트 밸리 와인 / 1박) – 유진(박물관, 미술관, 오리건 주립대 105 /1박) – 애쉬랜드(셰익스피어 연극, 와인 / 1박 103) – 메드포드Medford – 그랜츠 패스Grants Pass(움쿠아, 로그, 애플게이트 밸리 와인/1박) – 세일럼(1박) – 포틀랜드(1박)

레인보우 카페


선리버

펜들턴 언더그라운드 투어

오리건 주립대 캠퍼스

Travel Information 여행 정보

GOLF
골프

The Reserve Vineyards and Golf Club
매년 300여 회의 골프 토너먼트가 열리는 고급 골프장과 파인 다이닝
A 4805 SW 229th Ave., Aloha
W reservegolf.com

Indian Creek Golf Course
후드 산과 컬럼비아 강에서 가까운 골프 코스
A 3605 Brookside Drive, Hood River
T 541-386-7770
W indiancreekgolf.com

Pumpkin Ridge Golf Club
Witch Hollow와 Ghost Creek의 두 가지 수준 높은 골프 코스로 이름난 클럽
A 12930 Old Pumpkin Ridge Road, North Plains
W pumpkinridge.com

Aspen Lakes Golf Course
레드 샌드 벙커와 산들의 전경이 만드는 멋진 경치로 유명한 골프장
A 16900 Aspen Lakes Dr., Sisters
T 541-549-4653
W aspenlakes.com

Salishan Spa & Golf Resort
피터 제이콥슨이 디자인한, 파크랜드 스타일의 전반 홀과 스코틀랜드 링크스 스타일의 후반 홀이 조화를 이룬 바닷가 골프장
A 7760 Highway 101 North, Gleneden Beach
T 541-764-2371
W salishan.com

Sandpines Golf Links
샌드 듄과 파인 트리가 신비로운 대조를 이루는 경치가 일품인 곳
A 1201 35th Street, Florence
T 800-917-4653
W sandpines.com

Bandon Dunes Golf Resort
까다로운 지형과 바람이 더욱 재미있는 라운딩을 만드는 곳
A 57744 Round Lake Dr., Bandon
T 888-345-6008
W bandondunesgolf.com

Sunriver Resort
선리버 리조트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건조한 동쪽 사면에 자리잡은 63홀 규모의 골프 휴양지다. 3개의 주요 코스(Meadows, Woodlands, Crosswater)는 연중 쾌적한 컨디션의 골프 환경을 제공하며 〈골프다이제스트〉 등의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만년설이 뒤덮인 시스터즈 산을 배경으로 선리버 강과 울창한 삼림을 가로지르며 펼쳐진 코스의 경관이 빼어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전세 비행기를 타고 포틀랜드 공항에서부터 바로 이곳 그린 옆 활주로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A 17600 Center Drive, Sunriver
T 541-593-4402 **W** sunriver-resort.com

ACTIVITIES
그 외 야외 활동

Sand Dunes Frontier
광활한 모래 언덕을 5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로지르는 버기 라이드와 ATV 렌탈 및 캠핑을 제공한다.
A 83960 Highway 101 South, Florence
T 541-997-3544
W sanddunesfrontier.com

Sea Lion Caves
섬이 아닌 곳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 바다사자가 살고있는 동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바다사자들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다.
A 91560 Highway 101 North, Florence
T 541-547-3111
W sealioncaves.com

Wanderlust Tours
오리건 중부의 벤드, 시스터스, 선리버 지역을 중심으로 스노슈잉과 가이드 투어 등 다양한 반나절 야외 활동 체험을 제공하는 여행사. 여름철에는 카누와 동굴 탐험, GPS를 이용한 에코 챌린지 등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규모 그룹 단위로 안내한다. 명랑하고 활동적이며 친절한 가이드들이 특히 인상적이다.
T 541-389-8359
W wanderlusttours.com

Whale Watching Center
작지만 아름다운 항구 디포 베이에 있는 고래 조망 센터. 매 년 12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6월, 7월~11월 사이에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여러 종류의 고래를 볼 수 있다.
A 119 SW Highway 101, Depoe Bay
T 541-765-3304
W whalespoken.org

T&T Wildlife Tours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야생 엘크를 바로 앞에서 구경할 수 있는 야생동물 투어
A 15477 Sky Ranch Lane, Haines
T 541-856-3356
W tnthorsemanship.com

RESTAURANT
레스토랑

Rainbow Cafe
카우보이 분위기 물씬 풍기는 레스토랑
A 209 S. Main Street, Pendleton
T 541-276-4120
W mcgeerainbow.com

Raphael's
다양한 육류를 이용한 스테이크와 파스타 등을 내놓는 펜들턴 최고의 맛집
A 233 SE 4th Street, Pendleton
T 541-276-8500
W raphaelsrestaurant.com

Outpost Pizza Pub & Grill
다양한 종류의 피자와 스테이크. 거대한 빅풋 마가리타 칵테일 강력 추천.
A 201 West Main Street, John Day
T 541-575-0250

Haines Steak House
보기만 해도 배부른 묵직한 스테이크가 일품인 곳
A US Highway 30, Haines
T 541-856-3639
W hainessteakhouse.com

The Bay House
탁 트인 바닷가에 자리잡은 뉴포트의 이름난 레스토랑
A 5911 SW Highway 101, Lincoln City
T 541-996-3222
W thebayhouse.org

Travel Appendix

잊지 못할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

FESTIVALS IN OREGON Year-round Festivity
1년 내내 올레! 오리건의 축제
매 달, 그리고 매 주. 오리건의 어느 장소에서든 축제가 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리건에 있는 누군가는 웃고 떠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98

OREGON+ More Things You Never Miss
오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10 개의 덧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처 앞에 다 넣지 못해서 모아놓은, 오리건 여행의 추억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줄 또 다른 핫 스폿들 102

MAPS Detailed Maps
상세 여행 지도
포틀랜드 다운타운 106 포틀랜드 주변부 108 오리건 전체 110 와이너리 맵 112

TRAVEL NOTE Feel It & Write It
트래블 노트
여행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말고, 마음 속에만 새겨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종이 위에 적어 두기 114

FESTIVALS IN OREGON

Year-round Festivity

1년 내내 올레! 오리건의 축제

워낙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브루어리와 와인, 음식과 문화예술이 발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일 년 내내 펼쳐지는 축제들은 오리건 관광의 맛과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 소금 같은 존재들이다. 더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oregonfestivals.org 홈페이지 참고.

예술 음식 술 구경거리 스포츠

Reel Music Festival
1월
음악이나 음악가에 관한 영화들만 모아 상영하는 영화제. 몇 주 동안 계속되며, 영화에 등장한 뮤지션이나 영화 감독 등을 무대에서 볼 수도 있다.
W nwfilm.org/festi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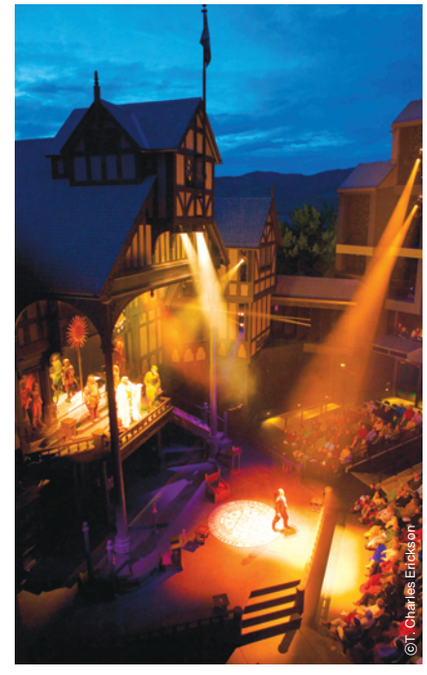
Oregon Shakespeare Festival
2~10월
'셰익스피어의 도시' 애쉬랜드에서 2월부터 10월까지 장장 8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세계 최고의 셰익스피어 축제. 토니 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비롯해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극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축제가 3곳의 주요 극장에서 일 년 내내 펼쳐진다. 무대 뒤편 투어와 강의, 콘서트 등도 많다.
W osfashland.org

Portland Jazz Festival
2월
2004년부터 시작된 젊은 축제이지만 어느새 겨울철 포틀랜드의 가장 멋진 행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다운타운의 50여 개 장소에서 공연, 전시, 세미나와 클래스까지 진행한다.
W pdxjazz.com

Portl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월
2010년으로 33회째를 맞는, 오리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 30여 개국 100여 편의 영화가 2주에 걸쳐 관객을 찾는다.
W nwfilm.org/festivals

Oregon Seafood and Wine Festival
2월
겨울철 오리건의 특산품인 던저네스 크랩Dungeness Crab 시즌에 맞춰 열리는 음식 및 와인 축제. 바닷가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최신의 와인이 곁들여진다.
W oregonseafoodfestival.com

Spring Beer & Wine Fest
3~4월
'성인 전용'의 축제.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손수 만든 맥주와 지역 와인 및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모두 모인다. 물론 음식과 음악도 있다.
W springbeerfest.com



Taste of the Nation Portland
4월
오리건 최대 규모의 음식 및 와인 시식 축제. 역시 성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70명이 넘는 레스토랑과 최고의 셰프, 40개 이상의 와이너리와 마이크로브루어리들이 참여한다.
W portlandtaste.org

Portland Indie Wine Festival
5월
연간 와인 생산량이 2천 상자 미만인 소규모 와이너리 중 전문가들이 선정한 40개의 와이너리만 참가할 수 있는, '떠오르는 별'을 위한 특별한 와인 페스티벌.
W indiewinefestival.com

Portland Rose Festival
6월
포틀랜드가 '장미의 도시'인 이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큰 이벤트이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다. 로즈 페스티벌 그랜드 플로럴 퍼레이드Rose Festival Grand Floral Parade나 워터프론트 카니발Waterfront Carnival, 드래곤 보트 레이싱Dragon Boat Racing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3주 동안 펼쳐진다.

Chamber Music Northwest
6~7월
1971년에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체임버 음악 축제로 자리잡았다. 음악회와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다.
W cmnw.org

Waterfront Blues Festival
7월
미 서부에서 가장 큰 블루스 페스티벌이다. 매년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5일간 열리며,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
W waterfrontbluesfest.com

Oregon Brewers Festival
7월
단 4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미국의 내로라하는 브루어리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맥주를 들고 포틀랜드를 찾는 북미 최대 규모의 브루어리 축제. 매년 6만 명이 넘는 맥주 애호가들이 70여 종의 맥주 속에 푹 빠져 지낸다.
W oregonbrewfest.com

PDX Pop Now!
7~8월
2주간 50여 명의 인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무료 축제. 참가하는 뮤지션의 일부는 팬들의 요청 목록 중에서 선택된다.
W pdxpopnow.com

The Bite of Oregon
8월
포틀랜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축제 중의 하나로, 흔히 'The Bite'라 불린다. 오리건 와인 가든Oregon Wine Garden에서 로컬 밴드들의 음악과 함께 셰프들의 훌륭한 요리와 로컬 와인을 맛볼 수 있다.
W biteoforegon.com

Pendleton Round-Up
9월
매년 9월 셋째 주말에 열리는 오리건 최대 규모의 로데오 경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로데오이기도 하다.
W pendletonroundup.com

Cycle Oregon
9월
1,500명이 넘는 사이클리스트들이 세계에서 몰려와 7일간 오리건의 수려한 경치를 등에 업고 달린다.
W cycleoregon.com

Portland Marathon
10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라톤 대회 중 하나로 197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언론에서 '걷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관대한 마라톤 대회'로 뽑히기도 했다. 마라톤 루트 주변 70여 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것도 특별하다.
W portlandmarath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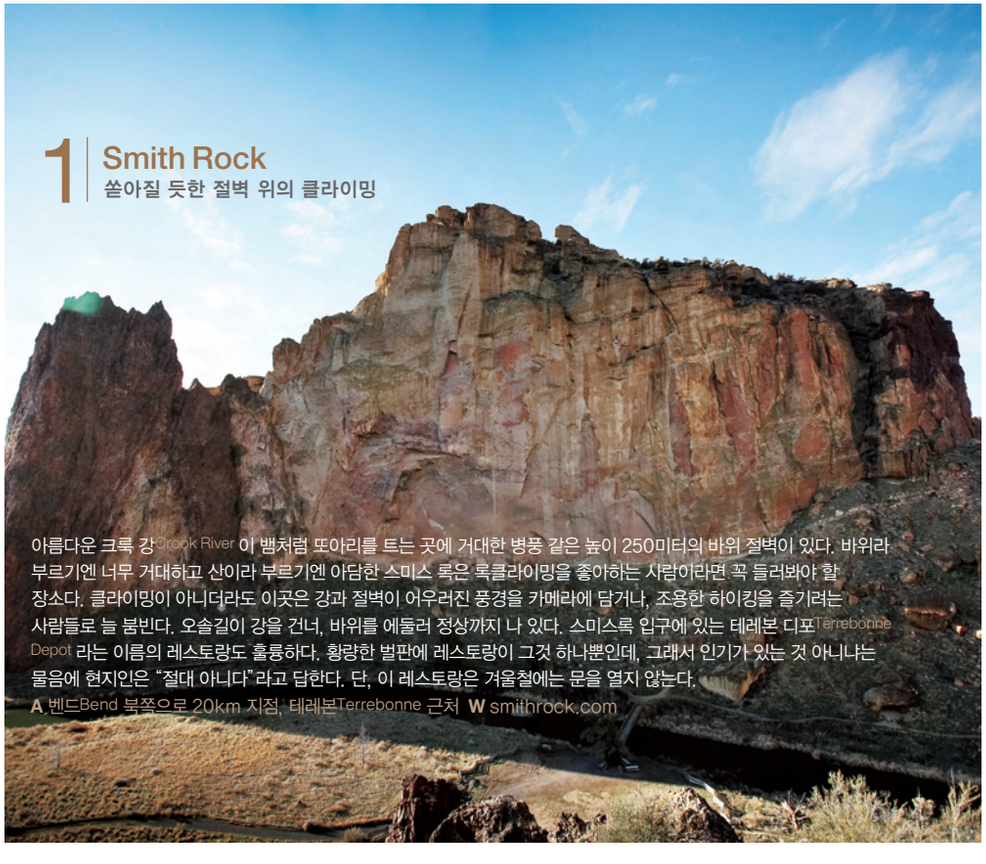
Northwest Film & Video Festival
11월
북미의 독립영화 및 비디오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 중심의 영화제. 구스 반 산트, 맷 그뢰닝 등의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포틀랜드 출신 아티스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W nwfilm.org/festivals

Festival of Lights at the Grotto
12월
50만 개가 넘는 전구들이 불을 밝히는 가운데 열리는 서부 연안 최대 규모의 합창 축제.

Parade of Christmas Ships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갖 전구들로 특별하게 장식된 60여 척의 배가 윌러멧 강과 컬럼비아 강을 항해한다.
W christmasships.org

OREGON+
More Things You Never Miss
오리건에서 못다한, 10 개의 덧말

여행이란 원래 돌아오고 나서 더 아쉬움이 남는 법이다. 여기도 가 볼걸. 왜 거길 안 가봤을까.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좀 더 담을 수 있는데. 좀 더 담아야 하는데. 페이지 수의 한계로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10곳을 여기에 모았다.



1 Smith Rock
쏟아질 듯한 절벽 위의 클라이밍

아름다운 크룩 강Crook River 이 뱀처럼 똬리를 트는 곳에 거대한 병풍 같은 높이 250미터의 바위 절벽이 있다. 바위라 부르기엔 너무 거대하고 산이라 부르기엔 아담한 스미스 록은 록클라이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봐야 할 장소다. 클라이밍이 아니더라도 이곳은 강과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거나, 조용한 하이킹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 오솔길이 강을 건너, 바위를 에둘러 정상까지 나 있다. 스미스록 입구에 있는 테레본 디포Terrebonne Depot 라는 이름의 레스토랑도 훌륭하다. 황량한 벌판에 레스토랑이 그것 하나뿐인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현지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한다. 단, 이 레스토랑은 겨울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A 벤드Bend 북쪽으로 20km 지점, 테레본Terrebonne 근처 **W** smithrock.com

2 Ashland
문화의 향기 물씬 풍기는 작은 도시

애쉬랜드라는 이름에 왠지 모를 애착이 갔다. 황량하고 처량하게 들릴 법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쩐지 그랬다. 아마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99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매년 2월 말이면 거리의 숍과 노천 극장과 고풍스런 리시아 파크Lithia Park가 셰익스피어를 읊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상을 해 보면 당신도 그럴 것이다. 15분이면 끝에서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애쉬랜드의 중심가에는 셰익스피어 풍 가면과 옷을 파는 부티크 숍, 예술 서적을 파는 서점, 가정집을 개조한 레스토랑 겸 B&B, 작고 편안한 브루펍들이 모여 있다. 여기 서 있으면 영국의 헤이온와이 같은 유럽의 한적한, 하지만 사람들의 교양의 토양은 결코 '한적' 하지 않은 작은 문화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 I5의 오리건 남쪽 끝 **W** ashlandchamber.com

3 Twilight Zone
〈트와일라이트〉 영화 촬영지

전 세계에 '섹시 뱀파이어' 열풍을 몰고 왔던 틴에이저 무비 〈트와일라이트〉에 나왔던 싱그러운 숲과 아름다운 마을을 기억하는가? 원작 속의 배경은 워싱턴 주의 포크스Forks이지만, 실제로 영화가 촬영된 곳은 대부분 오리건이었다. 포틀랜드 동쪽의 유서 깊은 B&B인 더 뷰포인트 인The View Point Inn에서 주인공 커플인 에드워드와 스완이 로맨틱한 춤을 췄고, 야구를 하는 장면과 엔딩 크레딧에는 멀노마 폭포 27 가 등장한다.

W theviewpointinn.com

4 Lighthouse
태평양 연안의 등대들

오리건은 평범한 굴곡의 해안선을 갖고 있지만 바다 밑의 암초와 태평양을 건너오는 파도의 굴곡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는 키 크고 눈 밝은 등대들이 많다. 1800년대 후반부터 하나 둘 세워진 등대들은 아직까지도 역할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다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뉴포트와 플로렌스 등 태평양 연안의 주요 도시들마다 근처에 등대 공원이 있다.

W Heceta Head Lighthouse hecetalighthouse.com

5 Newport Bay-Front
뉴포트 베이 프론트

오리건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뉴포트의 베이프론트에 서면 우리나라 통영의 바닷가 골목에 서 있는 것 같다. 키 작고 오래된 허름한 술집과 왁자한 선창가, 건물 빈 틈마다 보이는 알록달록한 벽화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조차 '풍경'이 되는 게 그렇고, 멀리 뒤쪽으로 예쁜 아치 교가 보이는 것도 통영과 비슷하다. 그러니 술 한 잔 맛이 좋지 않을 수가 없다. 신선한 크래프트 맥주와 야퀴나 베이에서 나는 싱싱한 굴 한 접시면 세상 어느 바닷가가 부럽지 않은 곳. 이 거리에 발을 들여놓으면 바다 너머로 해 지는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걷고 싶어질 것이다.

W newportchamber.org

6 Oregon Coast Aquarium
오리건 코스트 아쿠아리움

이제 바다 속을 지나는 유리 터널 같은 건 흔한 볼거리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브루펍이나 페인티드 힐보다 오리건 코스트 아쿠아리움에 있는 플렉시글래스 터널Plexiglas Tunnel에서 열렬히 환호한다. 상어, 대왕가오리, 대왕문어와 거대한 게 등 시선을 끄는 생물들이 많이 있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말미잘 등의 생명체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전시돼 있다.

A 2820 SE Ferry Slip Rd, Newport **W** aquarium.org

7 Pittock Mansion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저택

포틀랜드 시의 초기 멤버이자 오리건의 유력 매체인 디 오리고니언The Oregonian의 창립자인 헨리 피톡과 조지아나 피톡 부부의 집. 포틀랜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자랑했던 부부의 저택 답게 웅장한 규모와 멋진 경치를 갖고 있다. 마돈나의 센세이셔널한 영화 〈육체의 증거〉 등 여러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도 '부잣집 저택'의 전형으로 많이 등장한 것만 봐도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간다.
후드 산과 포틀랜드가 한눈에 보이는 저택 앞의 전경이 유명하며, 지금은 시 소유의 박물관이다.

A 3229 NW Pittock Drive, Portland **W** pittockmansion.com

8 Mt. Tabor Park
마운틴 데이보 파크

테이보 산은 포틀랜드 남동쪽에 있는 아트막한 화산이다. 분화구라기보다는 구덩이에 가까워 보이는 화구(전문 용어로 이 산은 분석구Volcanic Cinder Cone에 속한다)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아름드리 나무와 사시사철 푸른 잔디밭, 그리고 그 위의 사람들과 허리 아래로 보이는 포틀랜드 시가지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에 특히 아름답다. 맑은 날엔 잘 생긴 후드 산이 매우 가깝게 보인다.

A SE Division St., SE 60th Ave., SE Yamhill St., SE Mountainview Dr.로 둘러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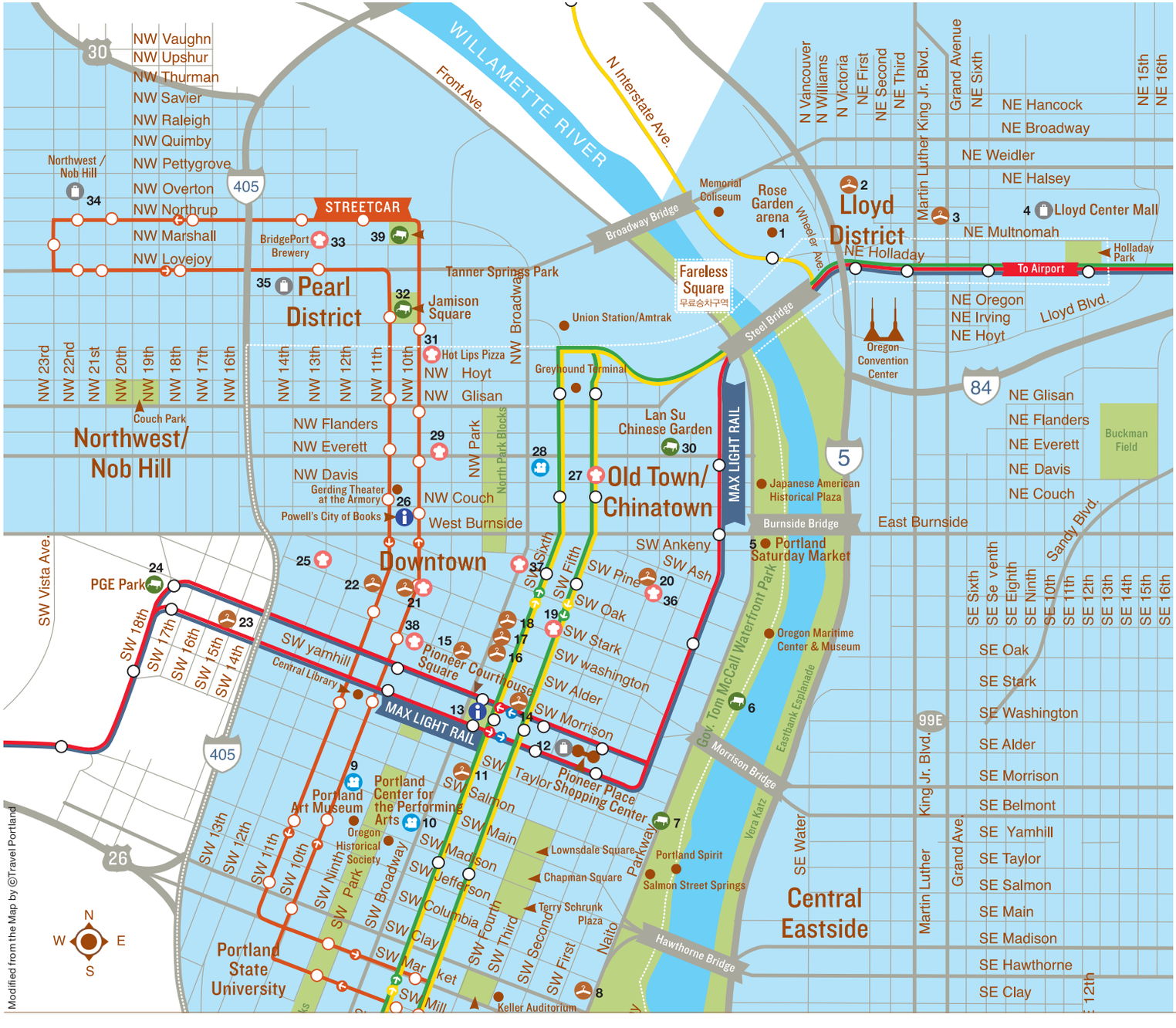
9 Trail Blazers @ Rose Garden Arena
오리건 유일의 메이저 스포츠 팀

프로 농구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미국의 3대 메이저 스포츠(NBA, MLB, NFL) 중 오리건 주에 있는 유일한 프로 팀이다. 그래서 오리고니언들의 블레이저스 사랑은 대단하다(그에 반해 성적은 최근 몇 년간 신통찮다). 블레이저스의 홈스타디움인 로즈 가든 아레나는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며, 경기가 있는 날이면 빨강-검정색 티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찬다. 빅 게임 티켓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렇지 않은 주중 경기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 농구 경기와 잘 짜여진 팬 서비스를 경험하기에 티켓 값이 절대 아깝지 않다.

A 1 Center Court, Portland
W nba.com/blazers, iamatrailblazersfan.com

10 University of Oregon
'오리' 날다!

아름다운 학업도시 유진Eugene에 있는 '오리'건 주립대의 마스코트가 '오리'인 건 순전히 우연이다. 당연하다. 오리건에서 차 뒷유리나 티셔츠에 커다란 'O' 자를 그려놓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원불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 또한 당연하다. 아무튼 오리건 곳곳에 숨어 있는 이 오리들과 'O' 들은 모두 오리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오리건 주립대의 학생이거나 졸업생이다. 젊은이들과 아름다운 나무 벤치, 값싸고 맛있는 레스토랑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오리건 대학 캠퍼스에 꼭 한번 들러보길. 거대 기업 '나이키' 창업자의 동문이기도 하니, 캠퍼스 시설이 멋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W** uoregon.edu



Modified from the Map by ©Travel Portland

Portland Central City Map

포틀랜드 도심 지도

Information & Bookstore 관광안내소 및 서점
13 Portland Oregon Visitors Association (파이오니어광장 내)
26 Powell's City of Books
W powells.com

Accomodations 숙박
2 Crowne Plaza Downtown / Convention Center
3 Courtyard by Marriott – Lloyd Center
8 Portland Marriott Downtown Waterfront
11 Hilton Portland & Executive Tower
14 Nines Hotel 52
15 The Westin Portland
16 Marriott Portland City Center on Broadway
17 Hotel Vintage Plaza 52
18 Hotel Lucia 52
20 Embassy Suites 52
21 Ace Hotel 52
22 The Mark Spencer Hotel 52
23 Hotel deLuxe 52

Food, Beverage & Liquor 레스토랑, 커피 및 바
19 Food Carts @ Fifth Avenue Pod 53
21 Stumptown Coffee (Ace Hotel 1층) 53
25 Cacao 53
27 Davis Street Tavern 52
29 Jimmy Mak's 53
31 Hot Lips Pizza 53
33 Bridgeport Brewery 66
36 Bijou Cafe 53
37 Saucebox 67
38 Food Carts @ Alder Pod 53

Art & Performance 예술, 공연
9 Portland Art Museum 79
10 Portland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rlene Schnitzer Concert Hall)
W pcpa.com
28 Museum of Contemporary Craft 79

Shopping 쇼핑
4 Lloyd Center 78
12 Pioneer Place 74
34 Northwest / Nob Hill 78
35 Pearl District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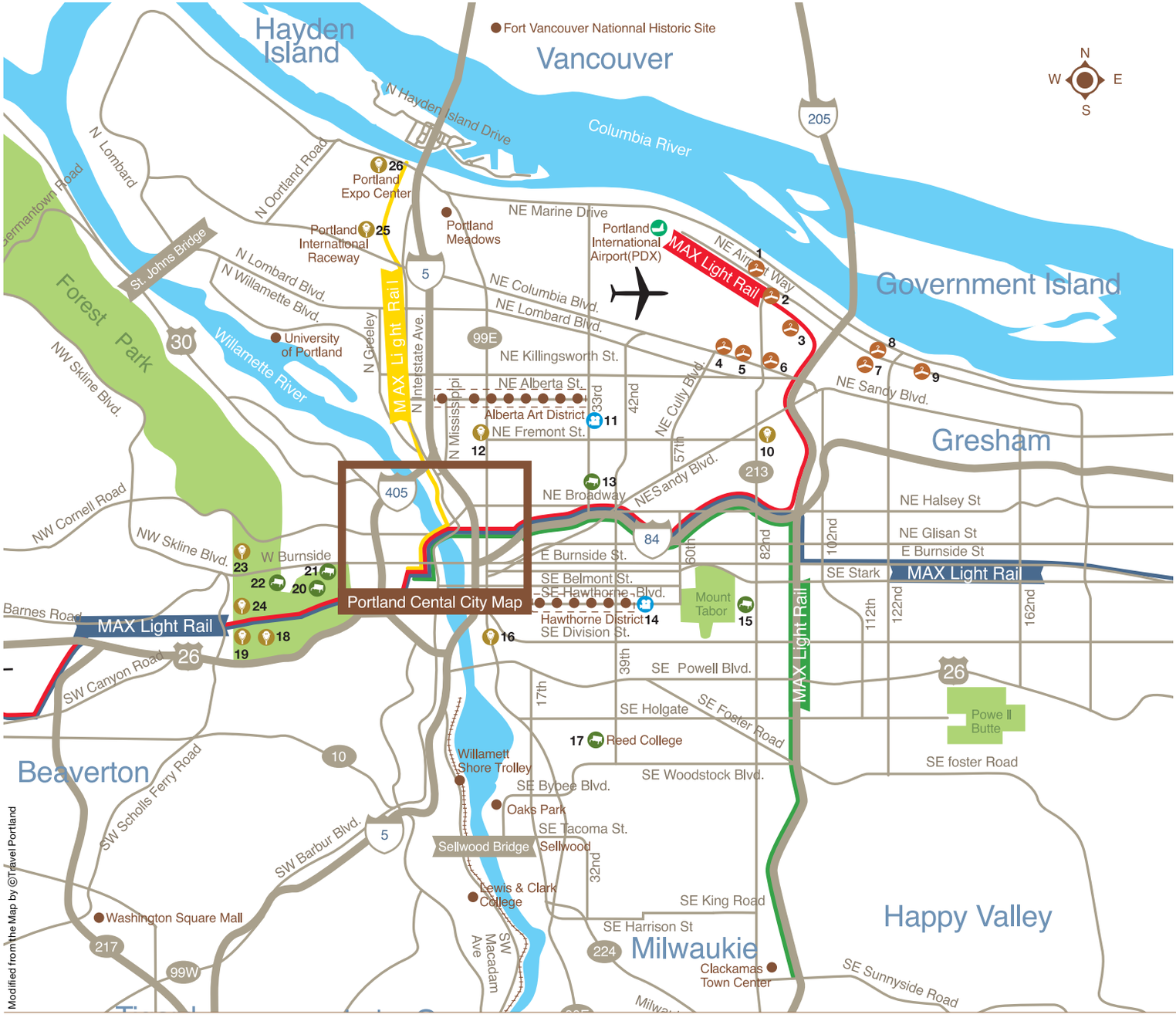
Park & Garden 공원, 정원
6 Tom McCall Waterfront Park
7 Mill Ends Park
24 PGE Park
30 Portland Classical Chinese Garden
32 Jamison Square Fountain
39 Tanner Springs Park

Etc. 기타
1 Rose Garden Arena 104
5 Portland Saturday Market 79
13 Pioneer Courthouse Square

TRAVEL MAP

Greater Portland Area Map

포틀랜드 광역 지도



Modified from the Map by ©Travel Portland

Airport 공항

Portland International Airport (PDX) W flypdx.com

Hotels near Airport

공항 근처 호텔

1 Sheraton Portland Airport Hotel
2 Embassy Suites Portland Airport
3 Hyatt Place Portland Airport
4 Radisson Hotel Portland Airport
5 Ramada Inn & Suites – Portland Airport
6 Holiday Inn Portland Airport
7 Courtyard by Marriott – Portland Airport
8 Shilo Inn Suites Hotel – Portland Airport
9 Hilton Garden Inn Portland Airport

Museum & Sightseeing

박물관, 볼거리

10 The Grotto W thegrotto.org
12 Rebuilding Center T 503-331-1877
16 Oregon Museum of Science & Industry (OMSI) W omsi.edu
18 Oregon Zoo W oregonzoo.com
19 Children's Museum W portlandcm.org
23 Pittock Mansion 103
24 World Forestry Center W worldforestry.org
25 Portland International Raceway W portlandraceway.com
26 Portland Expo Center W expocenter.org

Art & Shopping

예술, 공연 구역

11 Alberta Art District 78
14 Hawthorne District 78

Park & Garden 공원

13 US Grant Park
15 Mt. Tabor Park 104
17 Crystal Springs Rhododendron Garden
20 International Rose Test Gardens
21 Portland Japanese Garden 53
22 Hoyt Arboretum W hoytarboretum.org

Modified from the Map by @Travel Oregon

Oregon Map 오리건 전체 지도

Major Attractions 주요 관광지

Columbia River Gorge 26
John Day Fossil Beds 29
Crater Lake National Park 31
Cannon Beach 32
Oregon Dunes 33
Mt. Hood 35

Willamette Valley Area 윌러멧 밸리 주변

Eugene 유진
Fifth Street Public Market 78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79
University of Oregon 103
Marche 67
Valley River Inn 39

McMinnville 맥민빌
Evergreen Aviation & Space Museum 79

Woodburn 우드번
Woodburn Company Store 78

Dundee 던디
Dundee Bistro 67

Eastern Oregon 오리건 동부

Pendleton 펜들턴
Hamley's Western Store 38
Rainbow Cafe 95
Raphael's 95
Wildhorse Resort & Casino 39

La Grande 라 그랜
The Edge Gallery and the Coffee Lounge 79
Lehman Hot Springs 2
T 541-427-3015

Haines 헤인즈
T&T Wildlife Tours 95
Haines Steak House 95

Baker City 베이커 시티
Geiser Grand Hotel 2 39

John Day 존 데이
Outpost Pizza Pub & Grill 95

Central Oregon 오리건 중부

Bend 벤드
High Desert Museum 79
Smith Rock 102
10 Below 67
The Oxford Hotel 39

Sisters 시스터즈
Five Pine Lodges 2 39

Sunriver 선리버
Sunriver Resort 2 94

Oregon Coast 오리건 코스트

Newport 뉴포트
Oregon Coast Aquarium 103
Quimby's 67
Bay Front 103
Shilo Inn Suites Hotel Oceanfront Resort 39

Florence 플로렌스
Sea Lion Caves 94

Lincoln City 링컨 시티
The Jannifer Sears Glass Art Studio 79
Wildflower Grill 67
The Bay House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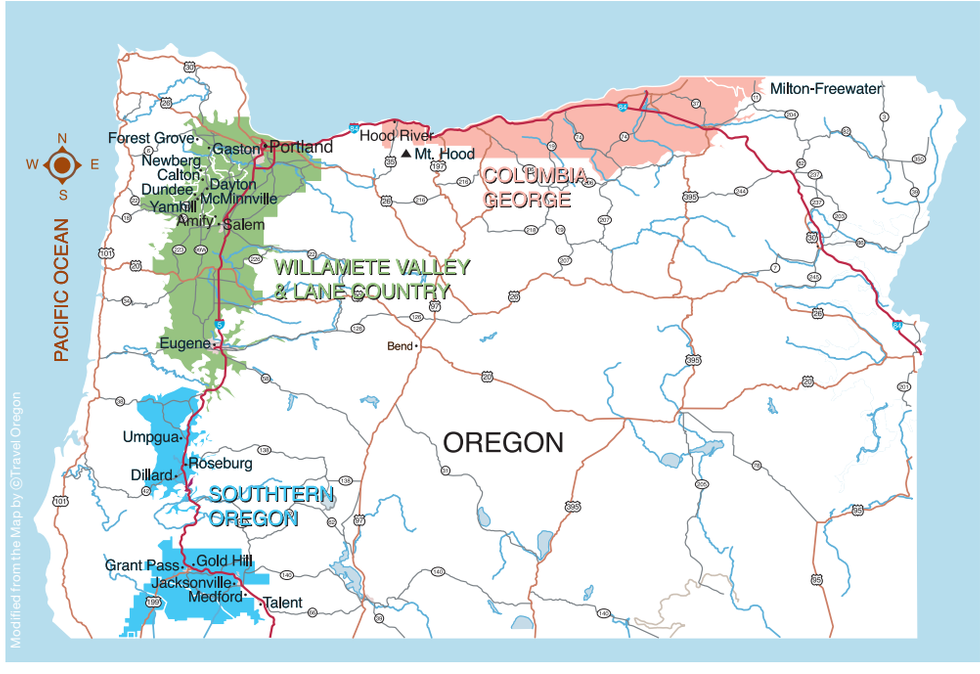
Depoe Bay 디포 베이
Whale Watching Center 94

Yachats 야하츠
Heceta Head Lighthouse 103

Southern Oregon 오리건 남부

Ashland 애쉬랜드 103
The Winchester 67
Ashland Springs Hotel 39

Medford 메드포드
38 Central 67



Oregon Wineries Map 오리건 와이너리 지도

WILLAMETTE VALLEY
윌러멧 밸리

Chehalem Mountains | Dundee Hills | Eola–Amity Hills | McMinnville | Ribbon Ridge | Yamhill–Carlton District

Salem
Ankeny Vineyard Winery
T 503–378–1498
W ankenyvineyard.com
Cubanisimo Vineyards
T 503–388–1763
W cubanisimovineyards.com
Orchard Heights Winery
T 503–391–7308
W orchardheightswinery.com
Vitae Springs Vineyard
T 503–581–3411
W vitaesprings.com

Newburg
August Cellars
T 503–554–6766
W augustcellars.com
Bergstrom Wines
T 503–554–0648
W bergstromwines.com
Penner–Ash Wine Cellars
T 503–554–5545
W pennerash.com

Amity
Brooks Wines
T 503–435–1278
W brookswine.com

Carlton
Cliff Creek Cellars
T 503–852–0089 **W** cliffcreek.com
Solena Cellars
T 503–852–0082
W solenacellars.com

Forest Grove
David Hill Vineyards & Winery
T 503–992–8545
W davidhillwinery.com

Gaston
Elk Cove Vineyards
T 877–355–2683 **W** elkcove.com
Kramer Vineyards
T 503–662–4545
W kramerwine.com

Yamhill
Stag Hollow Wines
T 503–662–5609
W staghollow.com

McMinnville
Yamhill Valley Vineyards
T 503–83–3100 **W** yamhill.com

Dundee
Archery Summit Winery
T 503–864–4300
W archerysummit.com
Domaine Serene
T 503–538–3199
W duckpondcellars.com
Erath Winery
T 503–538–3318 **W** erath.com

Dayton
Durant Vineyards
T 503–864–3785
W dundeehills.org/durant.htm
Winter's Hill Vineyard
T 503–864–4538
W wintershillwine.com

LANE COUNTY 레인 카운티

Eugene
Noble Estate Vineyard
T 541–954–9870
W nobleestatevineyard.com
Silvan Ridge Winery
T 541–345–1948
W silvanridge.com
Sweet Cheeks Winery
T 541–349–9463
W sweetcheekswinery.com

SOUTHERN OREGON
남부 오리건

Applegate Valley | Rogue Valley | Umpqua Valley | Illinois Valley

Grants Pass
Bridgeview Vineyards
T 541–592–4688
W bridgeviewwine.com
Troon Vineyards
T 541–846–9900
W troonvineyard.com

Jacksonville
Daisy Creek Vineyard
T 541–664–1707
W daisycreekwine.com

Gold Hill
Del Rio Vineyards
T 541–855–2062
W delriovineyards.com

Umpqua
Henry Estate Winery
T 541–459–5120
W henryestate.com

Medford
RoxyAnn Winery
T 541–776–2315 **W** roxyann.com

Roseberg
Spangler Vineyards
T 541–679–9654
W spanglervineyards.com
Melrose Vineyards
T 541–672–6080
W melrosevineyar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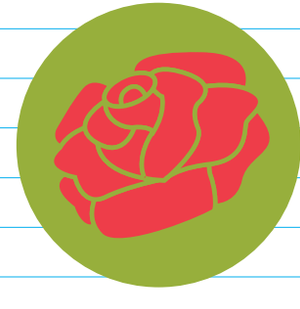
Talent
TRIUM Winery
T 541–535–4015
W triumwin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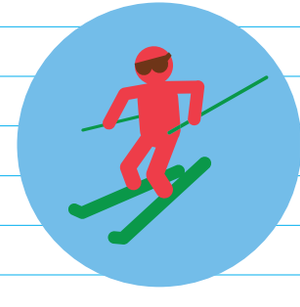
Dillard
Wild Rose Vineyard
T 541–580–5488
W wildrosevineyard.com

COLUMBIA GORGE
컬럼비아 고지

Milton-Freewter
Blue Mountain Cider Company
T 541–938–5575
W bluemountaincider.com

Hood River
Cathedral Ridge Winery
T 541–386–2882
W cathedralridgewinery.com





DELTA SKYTEAM

발행일 2010년 3월 20일
기획 포틀랜드관광청, 오리건관광청, 델타항공(Sam H Park)
제작 푼크툼 punctum
T +82-2-540-3668 F +82-2-540-3661
취재, 글 김보람
사진 박정우, 정수임, 포틀랜드관광청, 오리건관광청
디자인 마릴린디

발행처 TRAVEL OREGON
670 Hawthorne Avenue SE, Suite 240
Salem, OR 97301
+1-503-378-8850
traveloregon.com

TRAVEL PORTLAND
1000 SW Broadway, STE. 2300
Portland, OR 97205
+1-877-678-5263
travelportland.com

PORT OF PORTLAND
121 NW Everett Street
Portland, OR 97208-4049
+1-503-944-7000
portofportland.com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100-732 서울시 중구 순화동 2-6 중앙문화센터빌딩 7층
+82-1588-5792
monthly.joins.com

델타 항공
100-768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9층
+82-2-317-5555(서울) +82-51-469-7900(부산)
ko.delta.com

이 책의 저작권은 오리건관광청Travel Oregon 및
포틀랜드관광청Travel Portland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2010 by Travel Oregon / Travel Portland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